

문 대통령 “한국도운 아프간인에 도의적 책임 다해야”

“국민들 이해·협조 감사”... “불편함 없도록 살피고 방역에도 만전”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과거 한국 정부와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인들을 국내로 이송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우리를 도운 아프간인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치밀한 준비 끝에 무사히 국내로 이송할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 및 군 관계자들과 아프간인들이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면밀히 챙기겠다”면서 “아프간인들이 국내 도착 후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고,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2022대선과 자치분권' 비전 제시하다

8월 25일 '제2회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발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5일 국지성 집중호우 피해상황 점검을 위해 포항 지역을 방문한 가운데 경북도 동부청사에서,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2021 제2회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 컨퍼런스 특별 세션에 참석해 다가오는 대선과 자치분권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은 답이 없다.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대한민국의 판을 새로 짜야 한다.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동력, 그것이 바로 통합이고 도시화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치분권 강화 관련 핵심키워드 1) 재정분권, 2) 법제화, 3) 지방주도 3가지를 제시했는데, >먼저, 재정분권과 관련해 “재정자립도 50%이하 광역지자체가 12곳에 달해, 이러한 재정 불균형이 지역격차 심화, 지방낙후를 야기한다. 재정분권은 단순히 국제-지방세 비율조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세기/기자

>지방주도 자치분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경북도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5인 이상 집합금지 해제,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으로 방역과 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며, “위드 코로나 시대의 해법은 지방주도 자치역량 강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제 행정이 주도하던 시기는 지났고 대학, 기업,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미래 대응방안을 공동모색해야 하는데, 경북도는 지방주도 자치역량 강화 및 4차 산업혁명, AI 기술 강화 등 미래먹거리 준비의 일환으로 연구중심 혁신도정·체제로 전환중이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국민평가단' 9월3일까지 모집

본선 진출 10개 작품에 대해 전문심사위원과 국민평가단이 함께 심사



경기도가 공공디자인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방안을 발굴하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심사를 맡을 국민평가단 20명을 9월 3일까지 모집한다.

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우리 생활의 변화에 맞춰 재난 예방, 재난상황 긴급대응, 재난 이후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예정이다.

본선 심사에서 국민평가단과 전문심사위원이 아이디어 공감도, 작품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 비중 40%, 60%를 각각 맡아 최종 순위를 정하게 된다. 국민평가단은 만 19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20명을 9월 7일 선발할 예정이다.

수원시청소년재단, 청계구리연못(파장동) 제목이 곧 내용인 파티 '전래(傳來) 신나는 한가위 참가자 모집'... '제목이 곧 내용인 파티'는 테마별 다양한 여가·문화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9월에 진행될 '전래(傳來) 신나는 한가위'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전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런 프로그램은 전통매듭 브로치 만들기, 한복 미니어저 향낭 만들기, 자개공예 가방고리 만들기가 준비되어 있으며, 집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참가비는 무료이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8~13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신청 방법은 홍보포스터의 QR코드 스캔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정부/기자

[덕암칼럼] 풍전등화 한국 언론의 현주소

하필이면 25일 새벽 4시였을까.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의 남침과 같은 날과 시각, 물론 우연이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 이후 25일 새벽 4시 법사위에서도 차수 변경 끝에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이를 전격 통과시켰다.

제약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소탐대실로 이어질 우려를 안고 있다며 전세계 주요국 중 유례가 드물게 명예훼손죄가 언론에 적용되는 점은 이해 불가라는 입장이다. 이제 한국 언론의 현주소는 바람 앞에 등불이 됐다. 국회법 제93조의2를 보면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뒤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1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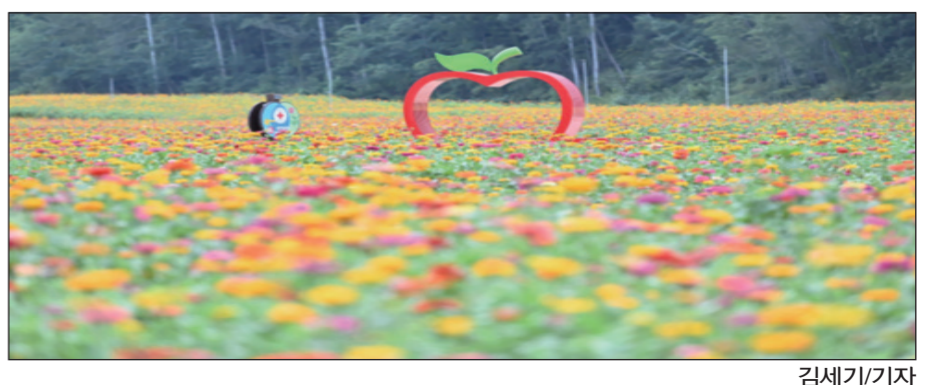
4시경 결국 법사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며 퇴장했고 여당은 단독으로 핵심적인 안건들을 일괄 처리했다. 견제는 아예 없었고 일방통행의 입법과정이었다. 이에 대해 많은 언론·시민단체와 학계·법조계, 정의당 등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법의 제정 과정에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는 거칠 것이 없었다.

이렇듯 모든 분야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과 여당의 강행, 야당의 반대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의회상 드러나지 않는 개정안의 숨겨진 이면에 과연 문재인 정부의 인기 만료를 대비한 것인지 언론의 횡포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인지 부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한 피해사례와 방지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이제 언론은 고의·중과실 추정조항에서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고의·중과실로 추정한다는 대목에서 회복가능한 손해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도 고무줄 잣대로 재는데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 논란 끝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는 삭제되었지만 언론에 대한 심리적·현실적 무게감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물론 모 언론사의 부수를 과장되게 발표하다 걸린 것이 최근이지만 시장에 의한 규율이 아니라 정부가 평가하는 매체 영향력에 길들여진 언론에 의한 피해는 기업과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래저래 수난의 시기에 돌입한 한국 언론, 특히 신문은 적어도 10년 전부터 예정된 재앙의 수순을 목살한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산소카페 청송정원, 꽃길만 걷게 해줄게!



김세기/기자

이용호 의원, 실수요자 서민만 옥죄는 대출절벽, 길바닥에 나앉아야 할 판!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은 25일, “술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금융권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농협 등 일부 금융기관은 전세자금 대출을 일시 중단하고 있다. 실수요자인 서민들은 길바닥에 나 앉을 판”이라면서,

“도대체 충분한 검토 후에 시행하는 정책인지, 아니면 ‘현금박치기’가 가능한 일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인지 알 수가 없다. 정부가 이토록 서두르듯 부동산·금융정책을 추진하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동안 무주택자인 서민들은 부동산대출을 통해서 월세에서 (반)전세로, (반)전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왔는데 아예 그 사다리가 없어졌다. 도대체 일반 실수요자인 서민들이 범죄자인가, 위법행위를 했나,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냐고 질타하는 글이 올라왔다”면서,

“대출규제 강화는 반대잡겠다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것에 불과하다. 실수요자들은 이제 돈 구하러 은행에 전전해야 하고, 그마저도 어렵게 됐다. 부동산·금융당국에게 묻는다. 돈 줄 막힌 실수요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물론 전세대출이 용도에 맞지 않게 쓰이는 부분도 있고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전세대출에 대한 별도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점층적 개선방안을 내놓아야지, 무턱대고 막아버리는 것은 결코 능사가 아니다”라면서,

“가계대출 중에 전세대출이 왜 높은지, 전세대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어떤 개선 노력을 했는지부터 먼저 밝혀야 한다. 물가는 오르고 월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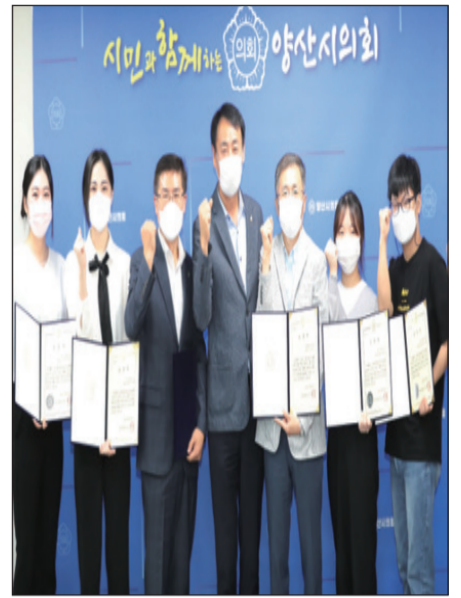
은 제자리에 있는 서민들이, 현장에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불요불급한 측면에서 과열된 시장의 규제나 관리를 해야지, 지금 이 상황은 모든 것을 다 콘트롤 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에 이어, 금융정책도 ‘누더기’로 만들 셈인가”라면서,

“예고된 재앙은 그 사이 대비를 하기 때문에 생각처럼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고되지 않은 재앙이 무서운 것이다. 지금이라도 전세자금대출은 총량에서 제외하고, 서민의 주거·계층·신용 ‘사다리’걸어차는 우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남출기자

양산시의회, 로컬 브랜드 개발사업 공로자에게 표창 수여



양산시의회 임정섭 의장은 25일 시의회 의정실에서 양산발전연구원과 동아대학교간의 산학협력사업을 통해 양산지역의 특산물 판로개발과 로컬 브랜드 자원을 창출한 양산발전연구원 김경우 원장 및 동아대학교 관계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이번 산학협력사업은 양산발전연구원 원동 지역의 문제해결과 로컬 브랜드 자원을 개발하고자 동아대학교의 ‘산업체 파견 교수’제도와 ‘방학기간 현장실습’제도를 활용하여 ‘원동 살리기 프로젝트’사업을 공동으로 2개월간 진행한 것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원동지역의 특산물인 매실, 미나리, 딸기 등을 활용한 대표브랜드 ‘원동력’ 제작과 지역특산물 판매를 위한 블로그 개설, 특산물 선물세트 제작을 위한 포장 디자인 개발 등의 성과를 이뤄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임정섭 의장은 “산학협력을 통해

최광용기자

완주군의회 유의식, 이인숙 의원, 완주형 공공 돌봄 정책 위한 첫 걸음

아이 키우기 좋은 완주 만들기 위한 간담회 가져



양질의 교육환경 구축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형식으로 의견 수렴을 통해 ‘완주형 돌봄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유의 의원은 “중앙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 다자녀 양육비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지자체 차원에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충남도의회 기경위 “4차산업혁명 선도할 로드맵 마련”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기경위 소속 의원들은 25일 충남 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공동주택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충남 ICT(정보통신기술산업)융합산업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방문한 계룡 하대실 2지구와 아산 광정 공공주택사업 예정지에 공동 및 단독주택 용지와 공공기관 청사, 체육공원, 도로, 소하천 등 도시기반시설이 구축된다. 완공되면 도민의 주거복지가 향상되고 충남의 신성장 거점으로서 새로운 발전축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계룡·아산시의 뛰어난 접근성을 살려 행정·문화뿐 아니라 산업 분야에서 충남이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대중교통과 교육환경, 생활편의시설까지 빈틈없이 준비해 전국에서 가장 삶의 질 높은 명품도시로 조성하자”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이어 의원들은 충남ICT융합산업협회 회원사와 만나 충남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정보통신 분야 육성 방안을 모색했다. 기경위는 충남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2.0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품질 역량강화 및 지역 업체에 대한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한 시



장점쟁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원들은 “충남은 디스플레이, 자동차, 제철 등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을 통해 발전해왔지만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충남이 선도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자”고 역설했다.

안장현 위원장(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이 여전히 조심스럽기도 했지만 이번 현장방문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며 “제11대 의회를 마치는 날까지 현장 중심의 의정을 통해 충남의 산업 체질을 근본부터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고정화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코로나19 청년의 삶 실태 진단 정책토론회 개최

코로나19 등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의 삶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활동가들이 모였다.

광주광역시의회 청년발전특위(위원장 최영환)는 25일 오후 3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코로나19 시대 청년의 삶 실태 진단 및 대책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발전특위와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주관으로 ▲김종진 (사)유니온센터 이사장과 ▲오인창 광주광역시 청년정책팀장이 발제자로 나서 코로나19 시대의 청년의 삶 실태를 발표했다.

토론자는 ▲주세연 청년지갑트레이

닝센터장, ▲임명규 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은철 광주시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참여해 코로나19가 광주시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최영환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관행적으로 추진된 청년정책에서 탈피해 청년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에 걸맞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토론회는 코로나19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광주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됐으며, 언제든지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김덕윤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dalyculture.kr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주/ 부회장 박부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 가50146 사회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제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방부: 내선 (119)
편집국: 02)2612-2959 팩스: 02)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남원시의회

NAMWON CITY COUNCIL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남원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광한루원의 봄

바래봉 철쭉

서울시, '부모자녀관계검사'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아동별 기질, 발달특성 등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돌봄으로 아동학대 예방 기반 조성



서울시는 획일적인 보육에서 벗어나 아동별 기질, 발달특성을 먼저 이해하고 이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 중 만3세 아동 부모 5,000명을 대상으로 8월~10월 '부모자녀관계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부모자녀관계검사(PRT, Parents-child Relationship Test)는 유아기 자녀의 기질, 발달특성, 자녀 스트레스 지수와 부모의 양육스타일, 양육 효능감, 교육환경 지원 등을 측정해 부모-자녀 사이의 상호작용 정도를 분석하는 검사다.

검사를 통해 아이의 기질을 알면 보육교사가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이에 맞는 보육 지도를 할 수 있어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고, 부모 스스로도 자녀양육에 대한 행동을 점검하고 올바른 양육방법과 교육적

행동지도 등 육아해법을 제공받음으로써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보육철학에 따른 것으로, 부모와 어린이집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육교사가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추진하게 됐다.

보육교사와 아동 간 유대 강화를 위해 ▲보육교사 대상 아동인권 존중 교육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아동인권 존중 의식 제고에 노력한다. 이번 부모자녀 관계검사는 아동인권 존중 의식 제고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책의 일환이다.

시범사업은 25개 자치구별 200명씩 총 5,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자녀 관계검사 위탁기관인 '부모공감'에서 진행방법 안내, 검사 실시, 검사 결과 안내 및 부모·교사 대상

슬루션 제공,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부모공감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부터 '2021 인터넷윤리교육'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으로, 부모자녀 관계검사와 함께 자녀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지도에 대한 온라인 강의로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와 아동 간 유대관계 강화가 중요하다"며, "특성이 다른 아동들에 대한 획일적인 보육서비스는 아동학대로 이어질 우려가 커, 부모자녀관계검사를 통한 아동별 기질, 발달특성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과 부모, 교사가 모두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제주도교육청,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종목별 시범 경기 영상 안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코로나 19 확산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도내 모든 학교 학생들의 기초 체력 증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종목별 시범 경기 영상 20종을 안내하였다.

안내에 앞서 지난 4월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종목 구성에 대한 공조전을 실시하였으며, 6월에는 일선 학교 체육(전담)교사로 이루어진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단을 구성하여 관련 활동이 가능한 경기 규정(15종목 33개 경기 규정)을 마련하였다. 여름 방학을 앞둔 7월에는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시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앱)을 학교로 안내하여 학생들이 가정에서도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번에 제작된 시범 영상은 학교로 안내된 경기 규정 중 학생이 집이나 놀이터, 학교 등에서 혼자 수행할 수 있는 개인 종목 20종목에 대한

수행 방법과 활동팁, 실제 경기 영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알기 쉽게 자막과 나레이션을 통해 제공된다.

시범 영상 촬영에는 해당 종목 선수 출신 또는 경기 지도 경력이 있는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단 교사들이 직접 참여하였으며, 본 영상은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 교내 리그, 교육장배, 교육감배 축전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관련 영상은 8월 24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며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용품을 제공하고, 내실 있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최재은기자

인천시, 체계적인 도로관리로 시민 안전 및 만족도 높인다.

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협약, 예방중심형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 도입

인천광역시시는 8월 25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식)과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로의 효율적 유지관리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기술·정보·인력 등을 서로 지원하고 공유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포장관리시스템, 교량관리시스템, 터널관리시스템 등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 구축과 시스템 유지보수, 실무자 교육훈련 및 기술자문 등의 역할을 맡고, 인천시는 기획·조정, 예산확보 및 정책방향 제시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번 협약으로 육안조사 등에 의존해 도로시설물 파손 이후 보수하는 기존의 유지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예방중심적인 도로 유지관리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으며, 매년 도로유지보수비용의 약 18%가 절감되고, 공용수명은 약 44%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도로 노면 상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줄여주고 포트홀 등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예방 할 수 있어 향후 시민들의 도로품질에 대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시는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국토교통부의 도로관리시스템을 30여 년간 운영한 건설연의 경험·지식·기술을 접목해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은 한정된 도로관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가



능하게 하여 인천시민의 안전 및 만족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업무협력을 통해 스마트한 도로관리시스템 및 인

천시 도로에 적합한 첨단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인천 동구, 2022년도 예산 조기 편성

지역경제 활성화·복지정책 확대 중점...민선7기 역점사업 성공적 마무리 위해 전략적 조기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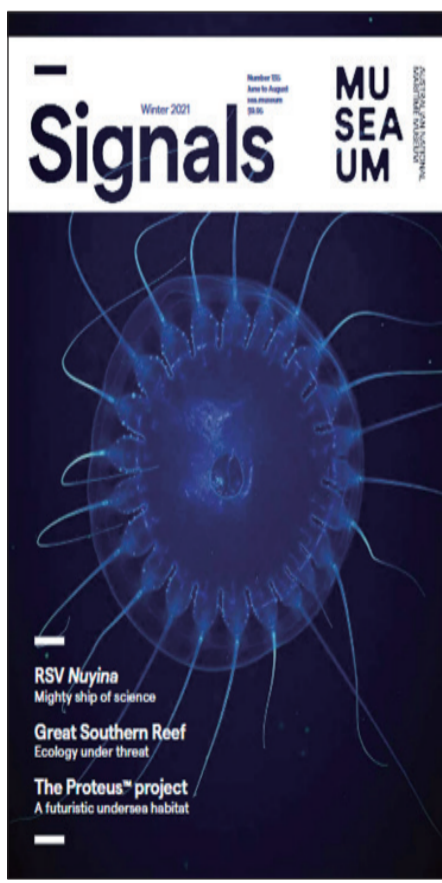
인천 동구가 지난 23일 2022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각 부서에 시달리고 민선7기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예산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간다.

구는 지난 7월말 시달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바탕으로 구의 재정운용 여건을 분석하고 민선7기 역점사업들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재원을 집중하는 한편 코로나19 피해회복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정책 확대 등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간 세입을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해 연초부터 지역경제를 건전할 수 있는 사업과 가시적 성과 도출 및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입한다. 사업예산도 신속한 재정집행과 불용예산 방지를 위해 집행시기를 철저히 분석해 전략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현유주기자

제주국제교육원 화상프로젝트 수업 참가 학생! 제주 해녀의 삶을 호주에 알리다



화상프로젝트 수업은 도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호주의 대학이나 전문기관의 교수나 교육담당 전문가들을 화상으로 만나 전문지식을 배우고 자신의 진로관련 탐구활동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월 화상프로젝트 수업 교육과정 중 하나로 호주국립해양박물관에서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수업 말미 강사가 3월부터 제주 해녀에 대한 특별 사진 전시회가 열릴 것임을 알렸다. 덧붙여 사진작가의 사진이나 일반적인 설명이 아닌 제주 해녀의 생생한 삶에 대하여 알고 싶다고 하였고, 제주중앙여고 양지혜 학생이 해녀였던 자신의 증조할머니와 할머니 친구분들의 경험을 소개하였다. 이를 계기로 양지혜 학생이 할머니의 친구분을 인터뷰하여 해녀 사진과 인터뷰 내용을 호주국립해양박물관 전시회 담당자에게 보내었다.

호주국립해양박물관 측은 양지혜 학생의 글이 박물관 정기간행물인 Signals magazine 최신판(135호, 56~59 페이지)에 게재되었음을 알려왔으며, "양지혜 학생의 글이 제주 해녀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어 매우 가치있다."라고 하였다. 양지혜학생과의 만남에서부터 인터뷰 내용은 박물관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주국제교육원 관계자는 "제주의 학생들이 해외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재은기자

구로구,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 개최

양성평등주간(9월 1~7일) 맞아 다양한 비대면 행사 열어



구로구가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구로구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 속의 양성평등'을 주제로 내가 생각하는 양성평등, 가족, 학교, 직장 내 양성평등 실천 사례, 생활 속 성차별적 요소 또는 성별 고정관념을 양성평등 의식으로 전환·확산하는 방법, 젠더 대립·갈등 문제 해결방안, 잘 알려지지 않은 구로구 역사 속 여성 인물의 삶과 업적,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반영한 정책 수립과 시설물 개선 필요성, 기타 양성평등에 관한 내용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인터뷰, 다큐멘터리, 드라마, 뮤직비디오, 일상기록(브이로그) 등 형식에

는 제한이 없으며, 9월 1일부터 10월 15일 사이 제작된 순수 창작 동영상 콘텐츠면 응모 가능하다.

관내 주민 누구나 개인 또는 4인 이내 팀 단위로 응모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이는 10월 1일부터 15일 사이 구청 여성정책과 이메일로 콘텐츠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참조.

구로구는 주제 적합성, 작품성, 활용성, 전달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작품 5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금상 1명(팀)은 100만원, 은상 1명(팀)은 50만원, 동상 3명(팀)은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게 된다.

구로구는 '양성평등 주간'(9월 1~7일)을 맞아 다양한 비대면 행사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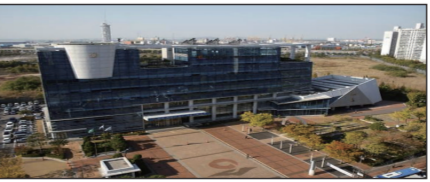
서울기독대학교 김형태 교수의 여성인권 특강과 토크 콘서트 '구로여성 토크(TALKTALK)'이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관내 영유아 보육 가정(50가구)을 대상으로는 '수제 향균비누 만들기' 행사가 열린다. 각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비누 만들기 체험을 실시한 뒤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활동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구로구는 양성평등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수여한다. 양성평등 실현, 여성 사회 참여 확대, 여성인권 강화 및 안전강화 등 3개 분야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수여식 없이 개인별로 전달할 계획이다.

김미성기자

웅진군, 비대면 스마트폰·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실시



인천광역시 웅진군은 24일 드림스타트 학령기 아동 4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스마트폰·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스마트침센터와 연계하여 진행된 이번 교육은 현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화상회의프로그램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으로, 스마트폰·인터넷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강한 사용문화를 제고하자는 취지로

초등 저학년, 고학년 분반으로 나누어 눈높이에 맞추어 진행되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외부활동이 줄어들고 스마트 기기 사용률이 높아진 상황으로, 이번 교육으로 아동들이 스마트기기의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하여 숙지하고, 중독 문제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웅진군 드림스타트는 관내 취약계층 만 0세~12세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중남기자

서울시, '교통지도단속 업무매뉴얼' 제작... 단속기준 설명 등 실무지침서로 활용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내용을 A에서 Z까지 알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제작



서울시는 교통지도단속 시 일선 현장에서 직원들이 명확한 단속기준을 제시해 단속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원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누구나 책 한권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통지도단속 업무매뉴얼'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업무매뉴얼'은 일선에서 교통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및 120다산콜센터 상담에 활용하고,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교육 등에도 널리 활용하도록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내용을 알기 쉬운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하여 제작하였다.

비매품으로 제작한 '업무매뉴얼'은 120다산콜센터, 서울시와 자치구 교통관련 부서, 버스·택시조합 등에 배부해 민원상담 및 교통민원 처리 등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또한 필요시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책으로도 제작·배포하였다.

'업무매뉴얼'은 일명 민식이법 등 최근 개정되거나 달라진 교통법규, 단속기준 등을 반영 등 명확한 기준 제시로 교통지도단속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거 따로 제작하던 불법주·정차 및 택시·버스 등 단속 매뉴얼과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매뉴얼 등을 종합하여 교통지도단속의 모든 부분을 총망라하는 종합지침서로 새롭게 발행했다.

또한, '업무매뉴얼'은 불법 주·정차 단속,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 단속, 버스·택시 등에 대한 교통불편신고 처리절차,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운영, 버스·자전

거 전용차로 및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불법 주·정차 단속분야에서는 단속공무원의 민원응대요령, 주·정차 위반의 요건 및 단속대상, 주·정차 관련 안전표지 등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쉬운 도표 등으로 제작하였다.

아울러,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현장단속 표준안을 제시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타 시도 택시의 사업구역 외 영업 단속 등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하

였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지도단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제작한 업무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 교통단속 공무원 업무 및 120 다산 콜센터 상담원들의 민원안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지도 단속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단속을 통해 교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인천 서구문화재단, 공연콘텐츠 공동제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인천 문화예술회관, 부평구문화재단과... 인천 최초 '협업'

인천 최초로 서구문화재단, 인천 문화예술회관, 부평구문화재단 3개 공공 문화예술기관이 공연콘텐츠 공동제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서구문화재단은 오는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 출신 김애란 작가의 '달려라, 아비'를 연극으로 각색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2021 문예회관·예술단체 공연콘텐츠 공동제작·배급 프로그램'의 지원을 토대로 인천을 대표하는 공연 콘텐츠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구문화재단은 인천문화예술회

관과 부평아트센터를 운영하는 부평구문화재단과 함께 각 기관이 가진 기획 경험을 살려 완성도 높은 공연을 제작하고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협약식은 오는 27일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해 진행한다. 협약은 공연 제작을 추진하면서 각 기관의 원활한 업무 이행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각 기관은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역 문화 진흥과 예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관 간에 협력을 통해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를 창작하는 데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세 기관이 최초로 선보이는 '달려라, 아비' 연극은 인천 출신 김애란 작가의 소설을 연극으로 각색했다. 택시 운전을 하며 자식을 길러낸 어머니와 자기연민에 빠지지 않고 긍정적인 삶을 그려내는 딸의 이야기를 유쾌하고 감동적으로 그려내는 원작을 잘 표현하고자 진여성 이미지와 현대적 가족관을 조명하고 있다. 연극의 출연진은 9월 초에 공개된다.

공연은 10월 22일부터 개관 예정인 서구 청라블루노바홀 공연을 시작으로 부평아트센터,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김종남/기자



구로구, 9월 인문학 강연 마련

커피, 미술, 음악, 뮤지컬, 만화... 다양한 분야의 작가와 소통

구로구가 9월을 맞아 다양한 인문학 강연을 펼친다.

먼저 구로구지역도서관에서 '인문학 책크린'이라는 주제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강연이 마련된다. 3일 박영순 작가('커피인문학' 저자)가 커피 이해와 커피 즐기기, 10일 김찬용 작가('김찬용의 아트 내비게이션' 저자)가 화가 이해와 명화 감상, 17일 황덕호 작가('다라방 재즈' 저자)가 재즈 이해와 재즈 감상법, 24일 박병성 작가('뮤지컬 탐독' 저자)가 뮤지컬 이해와 감상, 뮤지컬 즐기기 등을 내용으로 진행한다.

강연은 구로구지역도서관 강당과 유튜브 채널 '구로구지역도서관'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오프라인 강연은 선착순 5명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강연 방식이 변동될 수 있다.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서도 강연이 준비된다.

11일 개봉어린이도서관에서 하민석 작가가 '하민석 만화작가와 함께하는 만화교실'이라는 주제로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초등학교 1~6학년 3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같은 날 꿈마음도서관에서는 2021년 구로구책 성인부부 김희경 작가('이상한 정사가족' 저자)가 성인 30명과 함께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우

21.9.3.(금) 19:00		21.9.17.(금) 19:00		21.10.1.(금) 19:00	
커피인문학	(박영순 작가)	재즈인문학	(황덕호 작가)	여행인문학	(박재경 작가)
21.9.10.(금) 19:00		21.9.24.(금) 19:00		21.10.7.(목) 19:00	
미술인문학	(김찬용 작가)	뮤지컬인문학	(박병성 작가)	강의를 함께하는 시민의 예술 읽기	(4차례의 시간)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강연이 취소될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구로구지역도서관

리 사회의 통념을 다룬다.

온누리도서관에서 16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오션화 작가('아이가 방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저자)가 자녀와의 소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18일 개봉어린이도서관에서 양양 작가('계절의 냄새' 저자)가 오전 11시 그림책 제작과 감상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한다. 강의는 카카오톡 채널 '공동어린이도서관'을 통해 진행된다.

각 강연의 신청을 원하는 이는 지혜의 등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미상/기자

용산구, "전통공예 작품 만들며 힐링하세요"

2021년 가을학기
용산공예관 정규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신청기간: 2021년 8월 27일(금) ~ 9월 3일(금)

교육내용: ▲도자공예 물레성형 기초·작품 만들기 ▲금속공예 장신구 만들기·순은 문자투각 작품 만들기 ▲종이공예 민화 그리기·한지 작품 만들기 ▲칠보공예 장신구 만들기·장식기법·아름다운 빛깔 구이 ▲섬유공예 전통자수·매듭 ▲옷칠공예는 옷칠화·쟁반 만들기 등이다.

구 관계자는 "공예수업 특성상 실습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만큼 코로나나 상황이지만 대면으로 운영한다"며 "4인 이하 그룹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활력도 찾을 수 있는 전통공예 강좌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도자·금속·종이·칠보·섬유·옷칠 공예에 정통한 명장 등 17인이 강사로 나선다. 명장들은 용산공예관 공방에서 작품 활동과 전통공예 전승

을 위한 교육을 담당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2018년 건립된 용산공예관은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도심 속 전통공예 거점으로, 외국 여행 잡지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명소로 소개될 정도로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알리고 장인들의 작품활동이 깊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용산공예관은 지역 공예문화 메카다. 지하3층, 지상4층, 연면적 2800㎡ 규모로 공예품 판매장(1층), 도자기·한복 체험장(2층), 공예배움터·공방(3층), 전시실(4층)을 갖추고 있다. 다양한 공예 전시도 한다.

올해 기획전으로 '흙으로 피운 꽃 (한국현대도예가회 특별전)', '나무 천년이 되어(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이수자 김동규 특별전)', '부채, 남실바람이어라(선자장 김동식 특별 초청전)'을 진행했다.

최만식/기자

광진구, 건강한 미래를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광진구가 '2021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매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수준 ▲생활패턴 ▲의료 이용 실태 ▲삶의 질 등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유의미한 지역통계를 추출하여 보건사업의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조사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구민 916명으로, 4명의 훈련된 조사원이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항목은 ▲흡연 ▲음주 ▲식생활 등 기본적인 건강 관련 행태를 비롯, 18개 영역 163개 문항이다.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조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전에 가구선정 통지서와 소책자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진행되는 대면 조사인 만큼 참여자와 조사원의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안전하게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조사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광진구 보건소 보건정책과(450-1624)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의 침식 이후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중요성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며 "이번 지역사회건강조사가 향후 구민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강화군, 친환경·고품질답 벼짚 환원사업 추진

다음달 15일까지 읍·면에 신청, ha당 36만3천 원 지원

강화군이 농지의 지력을 증진시키고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여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친환경·고품질답 벼짚 환원사업"을 추진한다.

친환경·고품질답 벼짚 환원사업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지에 벼짚을 잘게 썰어 넣고 가을갈이를 실시한 농가를 지원하는 쌀 경쟁력 제고 사업이다. 올해는 시비를 확보해 지난해보다 ha당 63,000원을 증액한 ha당 363,000원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관내 친환경답 300ha이다.

신청대상은 친환경인증 벼 재배면적이 1,000㎡ 이상 또는 최고품질 강화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참여



하는 관내 거주 농업인이다. 신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받는다.

군 관계자는 "벼짚환원사업은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여 고품질 쌀

생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해당 농업인들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기간 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강동구, "강동구민 정책제안 특특광장" 사전참여자 접수

강동구가 9월 6일부터 9월 16일까지 구민이 제안하고 만드는 '강동구민 정책제안 특특광장'을 개최한다.

'강동구민 정책제안 특특광장'은 강동구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2040 강동 비전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 도시계획, 복지, 교통 등 분야별 정책 비전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구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필요한 점, 불편한 점, 개선해야 할 점 등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2040 강동 비전 정책연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9월 6일부터 16일까지 권역별로 4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참여인원 제한은 없으나 사전 참여 신청자에 한해 참여링크를 제공하므로 9월 3일(금)까지 사전 참여신청을 해야한다.

사전 참여신청은 특특광장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당일 토론회에 참여가 어려울 경우 특특광장 홈페이지에 정책제안 의견을 남길 수 있으며 토론회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토론회에서 구민들이 제안한 정책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강동구민 정책제안 특특광장'에서는 구민들이 생각하는 지역별 개선사항과 필요한 정책들을 공유하고, 구민들과 함께 강동구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이 제시될 수 있도록 구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황규식/기자

강동구민 정책제안 특특광장

내가 직접 제안하고 만드는 2040 강동 비전

9월 6일부터 16일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사전 참여신청은 특특광장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당일 토론회에 참여가 어려울 경우 특특광장 홈페이지에 정책제안 의견을 남길 수 있으며 토론회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토론회에서 구민들이 제안한 정책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 배달전문점 전수 점검... 부적합 40개소

김방 등 분식류 전문 취급 배달음식점
오는 11월까지 전수 점검

춘천시정부가 식중독 예방을 위해 배달전문점에 대한 전수 점검을 하고 있는 가운데 부적합 업소 40개소를 적발했다. 시정부에 따르면 배달업 등록 음식점 1,056개 중 지난 5월부터 8월 20일까지 451개소에 대한 점검을 했다.

451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적합 업소 411개소, 부적합 40개소로 나타났다.

부적합 업소의 경우 병장고 정리 및 조리장 청소 미흡 등이다.

부적합 업소에 대해 시정부는 재점검을 하고, 위생 상태가 불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는 11월까지 배달업 등록 음식점에 대한 전수 검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타 지역 식중독 발생 사례 발생에 대응하고 1인 가구 증가, 배달앱(app) 보급 등



배달 음식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다.

전수 점검과 함께 배달업 등록 김밥, 족발, 보쌈 등 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적당 판정을 받았다.

시정부 관계자는 "배달 전문 음식점은 조리환경이 공개되지 않아 비위생 등 소비자의 불안 요소로 지적받아 왔다"라며 "선제적 위생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불편·불만 요인을 최소화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광명시, 광명동굴 보행로 토사유출로 침하... 보수 및 광명동굴 전체 안전진단 나서

안전진단가와 현장 점검 원인분석, 사고원인은 토사유출, 빠른 시일 내 보수

광명시는 지난 23일 오전 9시5분경 발생한 광명동굴 내 공포체험관 보행로 침하 사고와 관련해 사고 발생 즉시 분야별 대책반을 구성하고 원인분석, 보수,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3일 공포체험관 내부 보행로 일부가 침하하면서 직원 1명이 빠져 119가 출동해 구조했으며 병원 검진 결과 얼굴 타박상외 큰 외상은 없었다.

시는 사고 발생 즉시 광명동굴 운영을 중단하고 사고경위 조사와 보행로 침하구간 안전 조치에 나섰다. 또한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광명시는 사고원인 파악과 보수를 위해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안전진단가와 두 차례에 걸쳐 현장을 확인했다. 확인결과 사고가 난 곳은 과거 비어있었던 공간으로 토사로 채워 보행로로 만들었으며 토사가

유출되면서 공간이 다시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광명시는 안전진단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 철근보 설치 방식으로보수할 계획이며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전기, 소방, 건축, 토목 전문가와 광명동굴 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점검을 할 계획이다.

안전점검을 통해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고 사고 발생지와 유사한 지점에 대해서는 이중 안전조치로 사고발생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연말까지 정밀안전진단도 실시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4일 광명동굴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보수 조치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박 시장은 "이번과 같은 안전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꼼꼼하게 보수하길 바란다"며 "광명시민과 관광객들의 불안감 해소



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25일부터 공포체험관을 제외한 광명동굴을 정상 운영하며 공포체험관은 안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한편 광명시는 그동안 시설 일일 점검을 비롯해 매일 전기, 소방 안

전 점검을 해왔으며 관광객 관람구간에 대한 지반 변동률 계속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실내 공기 질과 미개방구간에 대한 지반 변동률 계속도 매분기 실시하고 있으며 바위강도 및 안정성에 대해서는 매년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정부기자

하동소방서, 북천면 키즈펜션 現問現答 현장점검



하동소방서는 최근 현문현답 대상으로 북천면 소재 하늘꼬마 키즈펜션을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문현답(現問現答)이란 소방서장이 직접 추진하는 업무로, 현장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뜻이다.

하늘꼬마 키즈펜션은 연면적 536.09㎡, 객실 3동인 어린이 대상 숙박시설이다. 관계인을 대상으로 휴가철 성수기·주말 다수의 관광객이 이용하면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관계자의 신속한 대피 유도과 초기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예방안전수칙을 준수해 실시했으며, 하동소방서장은 키즈펜션 관계자와 함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소방시설 유지 관리 상태와 펜션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을 했다.

조현문 서장은 "피난약자인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안전사고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은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최광용기자

성장현 용산구청장, 한강대교 빗물펌프장 점검

24일 한강교 빗물펌프장 현장 찾2아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24일 한강교 빗물펌프장을 찾아 수방 대비 상황을 파악하고 시설을 점검했다.

이날 성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과 함께 펌프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펌프 및 전기, 기계, 수로 시설 등을 집중 점검하며 재해대비 상황을

살폈다.

구는 지난 2013년부터 국·시비 507억 원(국비 240억 원, 시비 267억 원)을 들여 한강교 일대 방재시설 확충사업을 벌여왔으며, 4년 4개월에 걸친 공사 끝에 2018년 4월 한강교 빗물 펌프장 운영을 시작했다.

또 구는 스마트 수방시스템도 운영한다. 2019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해당 시스템을 구축, 기상청·환경부 등에 산재된 기상특보·강우, 용산구(한강)주요지점 수위, 대피소 현황 등 정보를 지역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성 구청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부서별 비상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평상시에도 재해 취약시설 현장을 철저히 점검해 태풍·호우 시 인명피해가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학원집중방역기간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자체 방역점검 실시

동 두 천 시 신 시 가 지 일 대 학 원 및 교 습 소 점 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24일 '전국 학원집중방역기간'(21. 8. 9.~9. 3.)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자체 방역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학 전후 4주간 '전국 학원집중방역기간'으로 운영됨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의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동두천시 신시가지 일대 학원 및 교습소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학원 및 교습소가 현행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올바르게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했고, 학원 강사들이 PCR검사를 적극적으로 받도록 독려했다. 현행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4



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는 강의실 내 좌석을 두 칸 띄워야 하

며(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 면적 6㎡당 1명), 물을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되

고,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특히, 델타변이바이러스로 인해 백신 접종 후에도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학원 강사들에게도 PCR 검사를 권고했다.

오정호 교육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된 상황에서 학교 개학이 이루어지는 만큼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학원 및 교습소에서 더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만식기자

함안 조규호 부군수, 함안가축시장 방역 점검



함안군 조규호 부군수는 25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하향 조정으로 재개장된 함안가축시장을 방문하여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함안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환원에 따른 가축시장 재개장으로 시장 내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차단과 방역상황 점검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장을 위해 실시됐다.

매일 둘째·넷째 수요일에 개장하는 함안가축시장은 함안과 창원 양축농가들의 이용이 많은 시장으로, 지난 11일 휴장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의 많은 관심으로 총 133두(큰소 28두, 송아지 105두)가 상장되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조규호 부군수는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가축시장 재개장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시장 내 이용자 최소화, 출입구 차량 및 대인소독 철저,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강영훈기자

인천 중구, 불법 농지(토지) 성토 현장 적극 단속

홍인성 구청장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불법 성토행위 근절"

인천 중구는 영종·유유지역 불법 농지(토지) 성토 발본색원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구는 농지에 대한 무분별한 불법 성토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농지성토 T/F를 구성, 강력한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불씨를 차단하고자 적극 행정(단속 강화)을 실시하고 있다.

이미 고발된 필지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와 단속을 실시해 일부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즉시 행정처분했

다. 또 추가 고발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현수막을 불법 성토지에 게시해 불법 농지(토지) 성토 근절을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인천 경찰청, 중부 경찰서와는 불법 행위자 구속 기소를 위한 대책 회의를 실시해 불법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홍인성 구청장은 "불법에서 합법으로 농지 성토를 할 수 있게끔 적극 유도 할 예정"이라며 "여러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적인 성토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창원시, 상남동 불법영업 자정 활동 발 벗고 나서



창원시는 25일 상남동 일부 유흥업소의 불법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상남동 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관·경 협조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상남동 유흥업소 영업주로 구성된 자율점검반은 불법 영업 내부 신고를 적극 활용에 유흥밀집지역 위주로 순회하면서 불법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계도를 실시한다.

특히,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이 집합금지돼, 호객꾼을 이용 폐문으로 위장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 활동과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방역 수칙 이행을 홍보하고 위반업소 발견 시 즉시 시에 통보하도록 했다. 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창원시는 창원중부경찰

서와 호객행위를 상시 점검하기 위하여 상남동 일원에 방범용 CCTV 추가 설치를 검토하는 한편, 시청·구청 및 경찰 합동 기획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성림 보건위생과장은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다"며 "집합금지 업소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도 함께 처벌을 받는 만큼 시민들께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궁영기자

용인시,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기업 세메스(주) 고매동에 RnD센터 건립

24일 경기도·세메스와 투자유치 양해각서 체결

용인시에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점유율 7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장비 기업 세메스(주)가 기흥구 고매동 R&D 센터를 건립한다.

용인시는 24일 시장실에서 경기도, 세메스(주)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메스(주) 용인R&D 건립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백근기 용인시장,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강창진 세메스(주)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세메스(주)는 오는 2024년까지 6000억원을 투입해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764번지 10만㎡에 반도체 핵심 장비 연구개발 및 기술 육성을 위한 R&D센터를 조성

한다.

시와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계획 등의 인·허가를 신속 지원하고 기업과 함께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R&D센터는 건축물 연면적 16만5000㎡ 규모로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 연구개발 시설이 될 전망이다. 세메스(주)는 이곳에 차세대 반도체 양산설비 평가와 반도체 부품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목적의 팹(Fab)을 구축한다.

시는 R&D센터 건립으로 일자리 5000개 창출은 물론 2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등과 연계해 차세대 설비 개발로 반도체 장비 국산화 촉진과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데도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창진 세메스(주) 대표는 "고매동 R&D센터 건립으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 2곳이나 위치한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하고 적극적인 역량강화를 통해 글로벌 TOP5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세메스(주)의 용인 R&D센터 설립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유지·강화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기업이 필요한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기업과 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백근기 용인시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장비 기업인 세메스(주)가 시에 동지를 틀게 돼 시가

명실상부 K-반도체 벨트의 핵심 도시로 확고한 입지를 굳혔다"며 "R&D센터가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메스는 1993년 1월 설립해 반도체 전(前)공정설비인 클린(Clean), 에칭(Etch), 스피너(Spinner) 등과 테스트/패키징, 물류자동화, 디스플레이 설비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의 반도체 설비기업이다.

지난 2015년 장비업체 최초로 연매출 1조원을 달성하고 지난해엔 최대 매출인 2조2000억원을 기록하며 세계 7위 장비 기업으로 도약했다.

조혜영기자

고양시청소년재단, 특례시 청소년활동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고양시청소년재단은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 출범이후 청소년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 정책과 사업의 실질적인 공동협력을 위해 지난 24일 특례시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4단계 지침을 준수하여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특례시의 청소년활동과 시설을 운영하는 고양시청소년재단, 수원시청소년재단,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창원시청소년시설협회는 협약에 따라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도시 간교류 ▲특례시에 걸 맞는 청소년 정책 및 아젠다 발굴을 위한 포럼 및 토론회 ▲공동사업과 협력을 통한 경쟁력 있는 청소년사업 활동 등에 필요한 협력을

약속했다.

수원시청소년재단 송영완 이사장은 "청소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연구,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이동무 대표이사는 "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공동대응과 청소년정책제도의 개선", 창원시청소년시설협회 이재웅 협회장은 "경기도와 경남을 연결하는 새로운 청소년활동의 변화" 등 특례시 청소년활동의 다양한 발전방안을 강조했다.

박윤희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소통과 배움, 상생을 통한 특례시 차원의 청소년정책과 활동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안양시청소년재단,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안양센터 비대면 환경 보호 캠페인 실시



안양시청소년재단 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안양센터는 환경 보호 캠페인 '함께해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9월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캠페인은 음식물쓰레기 관련 카드뉴스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참가 희망기관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다짐문구 작성 또는 식사 후 빈 그릇 단체사진 인증샷을 제

출하면 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생활 속 환경 보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핸드타일을 선물로 증정한다. 참가희망 30기관에게는 분리수거 놀이 장난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체험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만안청소년수련관 박영미 관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미래 사회 주역인 어린이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경기도 농수산물진흥원, 마켓경기 전문 청년 쇼호스트 선발. 최대 출연료 1천만 원 제공



경기도농수산물진흥원이 경기도 농산물 온라인몰 '마켓경기' 전문 청년 쇼호스트 7명을 공개 오디션 '쇼드리머'를 통해 선발한다.

'쇼드리머'는 꿈을 이룬 쇼호스트(Showhost dream come true)라는 뜻으로, 마켓경기 라이브커머스(실시간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면서 경기도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참가자들의 쇼호스트 꿈을 응원한다는 취지로 정했다.

만 20~40세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진행되는 홈페이지에서 네이버폼으로 신청하면 된다.

1차 서류면접에서 네이버폼으로 작성한 참가 신청서와 3분 분량의 판매 시연 및 자기소개 영상을 기준으로 총 14명을 선발한다. 이후 2차 팀 미션과 최종 미션을 거쳐 7명의 입상자를 선정한다. 1위에게는 100만 원 출연료의 경기마켓 라이브커

마켓 출연 기회 10회, 준우승 2명에게는 출연 기회 5회, 입상자 4명에게는 출연 기회 2회를 각각 제공한다.

진흥원은 참가자의 인지도 향상 및 흥미 유발을 위해 공개 오디션 형식으로 선발대회를 진행한다. 오디션 전 과정을 촬영 후 유튜브 콘텐츠로 제작·게시하면서 시청자의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성장하는 라이브커머스 시장을 고려해 이번 선발대회를 기획했다"며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효과적인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열정을 가진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여주시 평생교육과에서는 8월 23일부터 31일까지 여주시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 하반기 여주시평생학습센터 정규강좌 수강생을 모집 중이다.

30개 프로그램에 440여명의 수강생을 모집하며 하반기 프로그램은 9월6일 개강하여 12주 이내 교육으로 11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여주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접수가 어려운 경우 평생학습팀에 전화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접수절차를 안내해 준다. 신청기간 안에 모집인원이 미달된 과목의 경우 9월1일부터 이를 동안 타 시군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수업이 진행되지만 위드코로나 시대에 실습이 필요한 과목은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성욱기자

안성시, 대덕면 소동산마을 로컬푸드 판매장 개소



주민의 손으로 일자리와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한 결실이 맺어졌다.

안성시 대덕면 소동산 마을은 어르신 일자리와 소득창출을 위해서 지난 24일 소동산 마을임구 공동체 로컬푸드 판매장(안성시 대덕면 보동리 139-2)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김보라 안성시장, 신원주 안성시 의회 의장, 윤석원 대덕면장, 정은길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장, 소동마을 소재 회사 대표, 그리고 마을주민 등 많은 분들이 참

석하여 소동산마을 로컬푸드 판매장 개소를 축하해 주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행사에 비가 오면 마을공동체 사업이 성공한다고 한다. 오늘 가을 장마가 오락가락하는 안 좋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판매장 운영이 잘 되기를 기원해 주어 감사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판매 확대를 통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마을주민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시흥시, '(주)신광ENGP' 정왕2동 이웃 위한 라면 200상자 쾌척

(주)신광ENGP는 지난 8월 25일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후원해 달라며 정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라면 200박스를 기탁했다.

(주)신광ENGP는 정왕2동 행정복지센터 외에도 타 지역 이웃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이번 후원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기탁한다는 뜻을 전해왔다.

조재경 (주)신광ENGP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주변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고 실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후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돌아보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웃을 돕는 일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김기세 정왕2동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라면을 전달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기탁된 물품은 정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하는 추석맞이 '사랑나눔꾸러미'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저소득층 50가구에 후



원하고, 일부는 정왕본1-3-4동 행정복지센터로 전달돼 정왕권역 내 저소득층 150가구에 후원할 예정이다.

원종균기자

‘코로나 위기 딛고 노동존중 세상 실현’ 경기도-민주노총 다시 한번 맞손



경기도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코로나19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다시 한 번 손을 잡고, 취약 계층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25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정교섭 협력 선언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도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노정교섭을 진행하며, 노동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협의해왔으며, 지난 2019년 그 성과물로 첫 번째 노정교섭 협력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양측은 이번 두 번째 공동 선언문을 통해 미래지향적이며 선도적인 노

정 관계를 구축,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더 어려워진 취약·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했다.

둘째, 비정규직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테스크포스(TF)를 공동 구성하기로 했다.

셋째, 구체적인 협의와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실무위원회’를 구성, 정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선언식에서는 선언 내용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부속 합의도 이뤄졌다.

두 번째 합의사항을 토대로 도와 노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테스

크포스(TF)’를 향후 1개월 내에 출범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는 직업상담사 처우개선, 보육교사 휴게시간 실질 보장 등에 대해 시·군이 적극 나서줄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힘을 합쳐야 하는 정책 파트너인 만큼, 함께 할수록 더 나은 대안을 만들 수 있다”며 “앞으로 노동정책 전반 방향을 수립하는 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00년부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와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일자리 및 노동현안을 논의하는 등, 노동단체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최만기기자

하남시, '청소년 홍보 영상 공모전' 개최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또한 팀별(최대 4명)로 교사 또는 학부모 1명도 참여할 수 있다.

1분~3분 내외의 순수 창작영상물로 개인 유튜브 계정에 동영상 업로드 후 URL주소가 포함된 공모신청서, 작품요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공모신청서, 작품요약서 작성 및 서명한 후 스캔하여 PDF파일을 네이버 폼(하남시 홈페이지 배너, 공식 SNS를 통해 URL 안내)에 등록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100% 온라인 투표로 평가되며, 총 6점의 작품을 선정한다.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에 총 260만원을 시상할 계획이며, 최종 발표는 11월 중 하남시 홈페이지 및 공식 SNS에 게시할 예정이다.

공모전 참가자 중 하남시청 유튜브 구독자에게는 시 캐릭터 굿즈(럭키박스)를 제공하고, 온라인투표(기간 10월 8일~22일) 참가자 중 하남시청 유튜브 구독자에게는 시 캐릭터 굿즈(1종, 선착순 1000명)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하남시 청소년들이 이번 홍보 영상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이 행복한 하남’ 만들기 위해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면서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공모전 참여를 통해 참신하고 다양한 홍보 소재가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강호기자

성남시, '제3회 하늘 정원상' 옥상 녹화 우수건축물 공모

성남시는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제3회 하늘 정원상' 시상 대상인 옥상 녹화 우수건축물을 공모한다.

도시 열섬현상 완화와 녹색 공간 창출을 확산하기 위한 공모다.

공모 대상은 사용 승인된 연면적 5000㎡ 이상의 옥상 녹화 조경 시설이 있는 성남시 소재 일반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이다.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가 응모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건축물 추천을 통해 공모에 참여해도 된다.

기한 내 하늘 정원상 응모 신청서, 사진, 도면 등이 있는 작품설명서나 옥상녹화 우수건축물 추천서를 시정 7층

건축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서면, 현장실사로 창의성(30점), 기능성(30점), 공공성(30점), 시공성(10점) 등을 종합 심사해 4곳 건축물을 선정한다.

접수가 높은 순으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오는 11월 중 시상한다.

시는 지난해 이 공모로 LH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대상), 서현도서관(금상), 중앙공설시장(은상), 위례 한화 오벨리스크 센트럴스퀘어(동상)를 선정해 각 건축물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에게 '제2회 성남시 하늘정원 상장'을 줬다.

원종균/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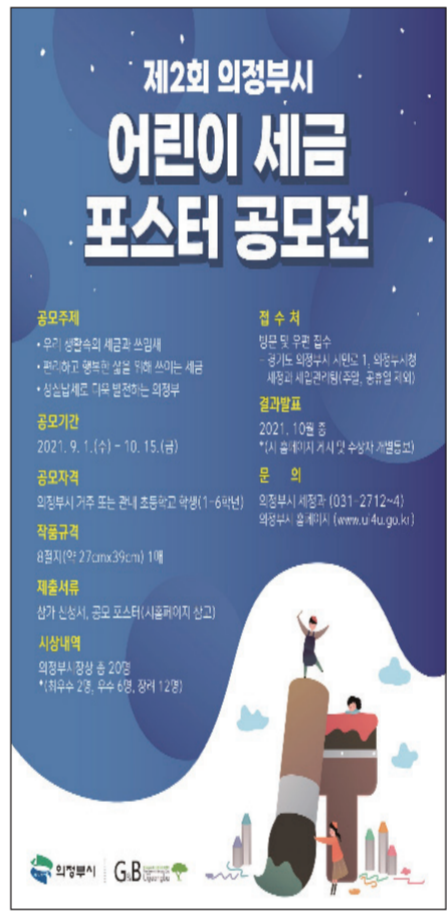
의정부시, 제2회 어린이 세금포스터 공모전 개최

의정부시는 미래 납세자인 어린이들에게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제2회 의정부시 어린이 세금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 생활속의 세금과 쓰임새',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쓰이는 세금', '실질납세로 더욱 발전하는 의정부'라는 주제로 실시되며, 세금의 다양한 쓰임새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세금의 중요성과 역할을 포스터 형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공모전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나 관내 초등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다. 접수방법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지정소식(고시·공고)에서 다운받은 참가신청서와 8절지(27cm×39cm) 규격의 작품을 함께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저학년부와 고학년부를 구분하여 진행되며 총 20작품(최우수2, 우수6, 장려12)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미래세대 주역에게 세금에 대한 중요성을 바로 알리는 세금포스터 공모전에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주기를 기



대한다”는 희망을 밝혔다.

한영기기자

오산시, 2021 예비문화도시 오산 '월간 오산 문화인' 첫 번째 영상

오산시 오산이음문화도시센터는 문화도시 오산이 추구하는 문화안정감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의 숨겨진 문화인들을 발굴하고 조명하는 영상을 지난 22일 문화도시 오산 공식 유튜브 채널 '이음으로 생동하는 문화도시 오산'에서 공개했다고 전했다.

[2021 월간 오산 문화인]을 통해 발굴된 첫 번째 인물은 무용가 노혜선이다. 중학생 시절부터 20년 가까이 춤과 함께 해온 평양검무 이수자다. 그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동안 춤을 추지 못했는데 잠에 들면 춤을 추는 꿈을 꿀만큼 춤을 사랑했다. 결국 전국국악대회에서 입상하며 다시 춤을 추었고, 오산시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무료 강습을 시작하면서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 평양검무 예능보유자인 임영순 선생에게 춤을 배워 평양검무

를 이수했다.

오산의 숨겨진 문화인 발굴과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장을 위해 진행된 문화인들을 발굴하고 조명하는 영상은 [월간 오산 문화인]은 이번에 공개된 무용가 노혜선 편을 시작으로 서예가, 생활문화장인, 시인, 피아니스트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숨겨진 오산의 문화인을 찾아가는 과정부터 문화인들의 활동 모습을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매 달 1명씩 총 5명을 유튜브 영상과 카드뉴스 형식의 매거진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오산이음문화도시센터는 [월간 오산 문화인]을 통해 지역의 숨겨진 문화인을 발굴하고 조명함으로써 코로나-19로 제한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지역 특색을 갖춘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남주기자

경북도, '헴프규제자유특구' 산업화를 위한 공론의장 열어



경상북도는 '경북 산업용 헴프(HEMP) 규제자유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25일 안동시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경북도, 안동시, 경북테크노파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추가 특구사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산업용 헴프(HEMP) 규제자유특구'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변경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특구사업자 추가 및 해지 ▷기타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경북도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도민에게 사전 공지해 코로나19로 공청회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반영(8.11. ~ 9.9.)한다.

먼저, 특구사업 활성화를 위해 동국대학교 등 우수기업 15개사(재배 11, 제조 4)가 새로이 참여하게 됐으며, 사업장 이전이 어려운 2개 사는 특구사업자에서 해지된다.

신규 특구사업자 추가는 우수 역외기업들의 특구 내 집적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조성으로 전후방 산업간 가치사슬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총 5522억의 대규모 투자유치로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특구로 인정받는 포항 배터리 특구의 경험을 산업용 헴프 특구에 적용해 특구사업의 조기 안착화 및 산업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추가 특구사업자 모집에는 총 49개의 기업이 사전 신청하는 등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 평가기관인 경북지역사업평가단의 전문가 평가를 통한 추가 사업자 선정이 이뤄졌다.

또한 특구사업 운영 상 필요한 특구면적 추가, 특구사업자 성명, 주소, 대표자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변경계획(안)은 11월 중 중소벤처기업부 관보로 고시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공청회에 이어 추가 특구사업자에 대한 사전 기업설명회가 이어졌다. 규제자유특구 소개, 특구사업자의 권한과 책임, 각종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참석자들과 자유로운 현장 토론을 통해 신규사업자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였다.

한편, 경북 산업용 헴프(HEMP) 규제자유특구는 올해 4월 30일 '산업용 헴프 재배 실증'과 '헴프 관리 실증'착수에 이어 8월 11일에는 국내 최초 고순도 의료목적 '원료의약품(CBD) 제조 수출 실증'까지 착수함으로써, 규제에 의해 사용할 수 없는 '헴프를 활용한 CBD 소재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 및 전·후방 산업 육성'을 위해 한걸음 또 한걸음 나아가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최초 헴프(HEMP)의 산업화 길을 열어 준 유일한 정책수단이자 경북도의 대표 브랜드"라며, "탄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인 실증을 통해 안전성, 경제성 검증으로 미래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울릉군·울릉군의회, 대형트롤선 동해 진출 저지 총력전

김병수 군수, 반대 건의 ... 해수부, '합의 없이 트롤선 동해 진출 불가'

울릉군과 울릉군의회는 대형트롤선의 동해 진출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김병수 군수와 최경환 의장은 지난 24일, 국회를 방문해 이계호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장과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을 만나 '대형트롤선 동경 128도 이동조업 반대 건의문'을 전달하고 대형트롤선 동해 진출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김 군수는 같은 날, 김병욱 국회의원(포항남,울릉)과 울릉 어업인 간담회를 포함해서 갖고 대형트롤선 관련 사안에 대한 설명과 영세 어업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국회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 관계관 면담에서 김 군수는 "울릉 어업인은 지난 수십 년간 대형트롤선의 무차별적이고 불법적인 조업으로 인해 어구 피해는 물론이고 어로작업과정에서 생명까지 위협 받는 등 어려운 고충을 감내하고 살아왔다"며, "특히,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남획과 기후변화 등으로 오징어



생산량마저 10년 전 대비 70% 이상 급감하고 있어 어업만으로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군수는 "대형트롤선의 동경 128도 이동조업 합법화 시, 울릉도 독도 유일의 이용 가능한 자원인 오징어의 고갈은 당연지사이며, 트롤선 동해 진출에 따른 불법조업 성

행으로 업종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며, 대형트롤선의 동해 진출 부담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긴급경영개선자금까지 대출받는 등 극심한 경영난을 겪으면서도 동해안의 오징어 자원 유지와 보호라는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친환경 조업을 하고 있는 울릉 채취기 어업인의 진정성을 알아 달라"며, 정

부의 대형트롤선 동해 조업 허용 검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준석 수산정책실장은 "현재 대형트롤선과 타 업종 간 상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연 근해 채취기 어업인과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대형트롤선의 동해 진출은 불가하다"고 해양수산부의 입장을 표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대형트롤선의 동해바다 진출은 울릉의 영세 연·근해 어업인의 공멸로 이어질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며, "대형트롤선 관련 이슈가 조속히 해결되어 어업인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의 대형트롤선 동경 128도 이동조업 금지 완화 검토에 대해 앞선 19일, 울릉군의 대정부 건의를 시발점으로 포함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등 환동해권 지자체와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및 전국 채취기총연합회 등 어업인 단체의 반대 움직임이 격렬히 일고 있다.

김기현기자

상주시, 방구석 평생학습 TV 시청 인증샷 이벤트 진행



상주시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방구석 평생학습 TV 시청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한다.

방구석 평생학습 TV는 올해 상주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채널 영남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장기화되는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편하게 TV로 학습할 수 있어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TV를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사로, 상주시민이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방구석 평생학습 TV를 시청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해당 접속 링크를 통해 간단한 후기와 함께 인증샷을 남기면 된다. 결과는 9월 30일 평생학습원 홈페이지에서 발표하며 10명을 선발하여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방구석 평생학습 TV는 KT 울레 TV에 가입된 시민이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며 매일 10시/14시/19시/23시 총 4회에 걸쳐 채널 789번에서 방영된다. 미가입자의 경우 상주시 평생학습원 홈페이지에서에서 강의를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 여행, 웃음치료, 서양미술사, 명상 등의 지난 방송을 재방영해 지금까지 시청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점근 평생학습원장은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비대면 평생학습 방법인 방구석 평생학습 TV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식과 교양을 쌓고 학습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반식기자

문경시, 스튜디오드래곤과 드라마 오픈세트장 조성을 위해 손잡다

문경시와 스튜디오드래곤, 하이켈리터는 8월 25일 스튜디오드래곤 본사에서 tvN 편성 예정인 드라마 '환혼' 오픈세트장의 성공적인 조성 및 차별화된 관광자원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경시 고윤환 시장과 스튜디오드래곤 강철구 대표, 하이켈리터 이수범 대표, 문경시의회 김창기 의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문경시와 스튜디오드래곤, 하이켈리터는 오픈세트장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다양한 관광콘텐츠 제공, 드라마 촬영 등 오픈세트장 적극 활용에 관여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스튜디오드래곤은 지난 6월 마성면 하내리 일원에 오픈세트장(부지 13,829㎡, 건물 2,294.43㎡)을 착공했으며, 술사들의 수련장소인 송림의 정진각, 훈련관

을 포함하여 32동을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다.

한편, 스튜디오드래곤이 제작하는 드라마 '환혼'(극본 홍자매, 연출 박준화)은 천기를 다루는 젊은 술사들의 이야기로 내년 상반기 tvN에서 방송 예정이다.

강철구 스튜디오드래곤 대표는 "드라마 '환혼'을 계기로 앞으로도 문경시와 함께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드라마 '환혼' 오픈세트장 조성으로 문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제작비의 장기체류로 활영지 주변 식당, 숙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폭우로 다리 유실돼 고립된 포항 죽장면 주민 구조 작전



고립 주민 12명, 헬기 등 동원해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시켜

폭우가 쏟아지자 당국은 저지대 침수 가옥의 주민 10명을 지정 대피장소인 마을회관·행정복지센터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으며, 다리 유실로 고립된 주민 2명은 소방헬기를 동원해 구조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즉시 죽장면을 현장 방문해 피해 복구 상황을 살피고 주민들을 위로하는 한편, 유관기관 합동 긴급 현장대응회의를 주재하며 조속하고 안전한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24일 밤사이 유실된 교량 응급 복구를 통해 임시 연결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국도유지관리사무소·KT·한전·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주택·도로 응급 복구 및 전기·광케이블 복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추가적인 요구 호 대상 파악과 대피에도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고 이재민 긴급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국지성 호우로 죽장면 일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긴급하게 군 병력을 요청하는 한편, 의용소방대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조속하고 안전하게 피해를 복구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달서구 새시대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달서청년네트워크



제3기 달서구 청정기획단 위촉식 개최

대구 달서구는 지난 24일 2층 대강당에서 지역청년들이 청년 문제를 직접 함께 고민하며 청년사업을 발굴·제안하는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청년네트워크인 '제3기 달서구 청정기획단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제3기 달서구 청정기획단'은 지난 5월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대학이나 직장에 다니는 18~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심사를 거쳐 학생, 직장인 등 지역청년 12명을 추가 선발하여 전체 1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식은 위촉장 수여, 기획단 향후일정 및 청년 주간행사 운영 방안

남궁영기자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2019년 9명으로 출범한 청정기획단은 정책팀, 교육팀, 홍보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청년들의 다양한 니즈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 발굴·제안 및 청년사업 홍보 등 청년활동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3기 달서구 청정기획단은 내년에 완공되어 개소할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청년들이 건강한 청년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모든 정책은 당사자의 의견을 얼마나 담아낼 수 있는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특히 청년정책이 더욱 그러하다. 우리 달서구는 청정기획단을 통해 청년의 의견을 더 생생하게 듣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 전했다.

밀양교육지원청, 학교종소리로 나라사랑

밀양지역 전 학교는 '111주년 경술국치일'을 맞아 학교종소리로 나라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밀양교육지원청은 오는 8월 27일 관내 전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어찌 잊을까 그날, 111주년 경술국치일' 계기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획은 '2021년 밀양 열 함양 교육 계획'의 한 부분으로, '독립운동의 성지'로서의 밀양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역사교육을 고취하기 위해 준비하였다.

경술국치(庚戌國恥)는 '경술년에 일어난 나라의 치욕스러운 날'이라는 의미로 '남의 재물이나 영토를 한데 아울러서 제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로 '한일병탄조약(韓日併呑條約)'이라 한다.

1910년 8월 22일 통감관저(현, 서울 남산)에서 대한제국 총리대신 이완용(李完鎔)과 일제의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에 의해 '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게 완전히 양인'한다는 외교조약을 맺고 7일 후인



1910년 8월 29일 순종이 강제 병합문을 발표함으로써 국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밀양교육지원청은 '어찌 잊을까 그날'이라는 주제로 ▲조기와 검은 리본달기 ▲111주년 경술국치 기념 포스터 제작 ▲111주년 경술국치 영상 교육자료 '어찌 잊을까 그날-경술국치' 제작 ▲밀양아리랑, 독립군가 학

교종소리 교제 프로젝트 '밀양을 울리다' ▲급식 계기교육 '독립군들은 무엇을 드셨을까' ▲111주년 경술국치 음악과 유튜브 실시간 공개 수업 '독립군의 후예, 독립군 아리랑을 다시 부르다' ▲111주년 경술국치 계기교육 수업 중등 교육자료 7종, 초등 교육자료 2종을 제작하고 밀양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남궁영기자

특히 111주년 경술국치일을 기념하여 제작한 학교 종소리 밀양아리랑과 독립군가는 미리벌초등학교 관현악단을 통해 음원을 제작하여 무료로 제공한다. 밀양지역 전 학교에서는 8월 27일 시작 종으로 밀양아리랑, 마침 종으로 독립군가를 울리며 학교종소리로 나라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8월 27일 10시 30분 ~ 11시 30분까지 미리벌초등학교에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학교종소리 교제사업 관련하여 '독립군의 후예, 독립군 아리랑을 부르다' 음악과 주제수업을 공개한다.

김정희 밀양교육장은 "지나가기만 하고 되풀이되지 않는 역사는 없다고 한다. 근현대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경술국치일이 잊혀지고 있어 이번 계기교육을 기획했다. 독립운동의 고향 밀양에서 준비한 이 계기교육을 통해 학생, 교육가족들이 경술국치일을 잊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소방본부, 최근 3년간 7분 이내 도착률 4.5% 향상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정병도)가 최근 3년간(2018~2020년) 발생한 화재(2,511건)를 분석한 결과 화

재 골든타임인 7분 이내 도착률이 4.5%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골든타임은 신고 접수에서 출동

준비단계, 소방차의 차고지 출발, 현장 도착까지의 시간으로 통상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7분으로 설정한다.

울산소방본부는 화재 확대 및 대형재난 방지를 목표로 7분 이내 현장 도착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골든타임인 7분 이내 도착률은 지난 2018년 70.3%에서 2019년 70.8%, 2020년 74.8%로 매년 향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74.8%)의 경우 전년 대비 4%나 상승해 전국 시·도 중 인천, 창원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전국 평균 65.7% 보다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승률은 울산소방본부의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도입,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 불법 주정차 단속과 함께 시민들의 소방차 길 터주기 양보 등에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정병도 울산소방본부장은 "중구나 남구지역의 경우 차량통행이 혼잡한 도로가 많고 울주군의 경우 관할 면적이 넓어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등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이성문 구청장, MBC 특별생방송 지방자치 30주년 국민이 만드는 나라 출연

국민참여단 49인 온라인 통해 함께 참여 지방자치 토론의 장 열리

부산광역시 연제구 이성문 구청장은 8월 25일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지방자치 30주년 국민이 만드는 나라'에 출연한다.

'지방자치 30주년 국민이 만드는 나라'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역MBC 16개사와 자치분권대학이 공동으로 기획한 토론 프로그램으로 국민의 목소리와 지역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6개의 의제를 선정하고, 각 의제별 125분간 토론방송을 펼치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이성문 구청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동진 도봉구청장, 박승원 광명시장, 우명동 교수 등 정치인, 행정가, 전문가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특히, 49인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이 온라인으로 참여, 각 의제에 대해



사전 설문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의견을 전달한다. 토론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국민참여단 설문결과가 발표되며, 토론자와 함께 의견을 나누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허일후, 안희승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은 '자치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패널, 국민

들과 깊고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대토론회이자 공론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방송은 MBC부산방송 등 경남, 대구, 대전, 광주, 원주 등 16개 지역 MBC에서 공동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추후 KTV, 국회TV에도 방송될 예정이다.

남궁영기자

경남도립거창대학 '희망 선(先)결제 캠페인' 동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활력 부여



경남도립거창대학은 25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희망 선(先)결제 캠페인'에 동참했다.

선결제 캠페인은 음식점과 잡화점 등 소상공인 업소에서 선결제 방식으로 미리 결제하고, 나중에 찾아 쓰는 소비 촉진 운동이다. 이에 경남도립거창대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비

진작 캠페인에 마음을 보태었다. 박유동 총장은 "선결제에 참여하는 작은 도움이 나비효과를 일으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주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유관기관, 기업,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최광용기자

거창군, 3無 농산물 인증날개 달고 전국으로!

거창군은 전국 최초로 농업 생태계 보전과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3無농업(無제초제, 無생장조절제, 無착색제) 실천농가의 현지조사를 통해 인증을 마치고 홍보 스티커를 배부했다고 밝혔다.

올해 3無농업 실천에 참여한 농가는 387 농가(사과 170, 벼 163, 딸기 27, 기타 27), 912ha로 지난해 대비 71% 면적이 증가했으며, 군은 m당 50원, 최대 50만 원까지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군은 3無농업 실천을 위해 물관리가 중요한 논 시범포 3개소를 조성해 논물관리 기술을 지도하고, 3無농업 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포장을 설치하여 연 2회 현지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3無농업 실천사업으로 농업인 스스로가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국민이 건강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며, "3無 농산물을 군의 대표 농산물로 브랜드화 해서 학교와 공공급식에 우선 공급하고, 전국택배,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은 지난 7월 3無농업 실천 농산물 브랜드 개발 용역을 완료하여 생산물에 대한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배부했으며, 생산물은 3無 농산물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고 전국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장병철기자



진주시, 청렴도 'UP'은 계속된다

청렴 교육, 청렴 포스터 제작 등 코로나 상황에도 청렴 시책 지속

경남의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은 요즘 코로나19 방역에 모든 행정력이 집중되는 현 상황에서도 진주시는 시정의 근간인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상반기 신규직원부터 7급 실무자까지 총 800여 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등 청렴 교육을 12회에 걸쳐 실시했고 교육에 참여한 직원의 90%가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시는 지난 상반기에 처리한 인·허가, 공사, 물품·용역, 보조금 지원 등 5개 분야 민원인에게 진주시장의 청렴 의지와 민원 처리 시 위법사항에 대한 대처법이 담긴 서한문 2,600건을 최근 발송했다.

또한, 청렴 의지를 다지고 앞장서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장을 비롯해 간부 공무원과 전 직원 2,000여 명의 사진을 모자이크식으로 디자인한 청렴 포스터를 제작해 전 부서에 배부했다.

시 청렴윤리팀장은 "청렴 포스터에 있는 본인의 얼굴을 찾아보고 재미와 청렴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효과가 있어 직원들의 반응이 좋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시는 8월 31일까지 동



영상, 노래, 수필, 웹툰 등 비대면 청렴 콘텐츠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9월에는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진행한다.

진주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최광용기자

함안군 경주마 '함안방어산' 국6등급 1300m 우승 쾌거



지난 8월 22일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경마장에서 열린 국6등급 1300m 경주에 3번을 달고 출전한 함안군 경주마 '함안방어산'이 1분 21초 7의 기록으로 우승하는 쾌거를 거두며 우승상금 1144만 원을 받았다.

지난해 1월 함안군 경주마 '아라가야왕성' 우승 후 1년 8개월만으로 그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함안군의 말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함안방어산'은 2018년 함안군에서 모마 '여러분의 여왕'으로부터 자체 생산한 자마여서 이번 우승의 의미는 더욱 크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이 생산한 자마가 그 동안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해 애를 태웠으나, 이번 경주에서 함안군 자체 생산 경주마가 우승한 만큼 나머지 1, 2세마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우수한 경주마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울산교육청, 청렴 캐치프레이즈 포스터 제작 배포

청렴문화 확산 및 구성원 동참 유도로 청렴 울산 교육 조성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청렴문화 확산 및 구성원 동참을 유도로 청렴 울산 교육을 조성하기 위해 '청렴 캐치프레이즈' 포스터를 제작하여 23일 전 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스터는 노옥희 교육감을 비롯한 시교육청 및 산하기관 간부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부서)별로 특성에 맞는 청렴과제 실천방안을 발표해 선정된 5개의 캐치프레이즈로 구성되었다.

울산교육청은 민주적 조직문화 조성, 공정한 업무처리 등 공직자의 청렴 의식 고취와 동시에 구성원의 동참을 유도하고자 포스터를 제작·배포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며 "현재 울산교육청은 전



국 최상위권의 청렴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시민·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곡성군 갤러리107, 예술의 쓸모 문화의 탄생



지난해 5월 전남 곡성군에 문을 연 갤러리107이 농촌 읍내에 예술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갤러리107의 크기는 76㎡에 불과하다. 한 마디로 동네 점방만하다. 실제로 과거에 전과사로 쓰이던 작은 점방을 리모델링했다. 규모가 아담해서인지 친근하다. 미술관에만 들어오면 낯선 손님이 되곤했던 이질감이 이곳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갤러리107은 읍내 삼점 거리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덕분에 주민들은 오며가며 미술관을 찾는다. 가끔씩은 작품 감상보다는 하릴없이 무더위를 식힐 때도 있다. 그만큼 편하고 익숙하다. 높게만 느껴지던 미술관의 문턱은 사라지고 미술관은 주민들의 생활 그 자체가 됐다.

갤러리107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골목 미술관을 표방했다. 즉 갤러리 자체가 키치(kitsch)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서 생활과 예술의 구분은 무의미하며, 일상과 예술은 서로 경계를 짓지 않는다.

이같은 예술의 일상화, 일상의 예술화는 갤러리107과 함께 읍내 길거리에 조성된 2곳의 스트리트 갤러리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스트리트 갤러리는 거리를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컨테이너형 갤러리다. 어떤 사람들은 작품에 무관심한 듯 스쳐지나간다. 또 다른 사람들은 거리에 한참을 멈춰서서 작품을 응시하기도 한다. 삶이 그렇듯 예술은 배경(景, background)이 되기도 하고, 전경(前景, foreground)이 되기도 하면서 주변으로 녹아든다.

1년이 조금 넘는 동안 갤러리107과 스트리트갤러리에서는 약 20회의 전시가 진행됐다. 강례오, 오정훈의 꽃길 공예전이나 정명돈 화가의 곡성 풍광전처럼 이름을 알만한 작가의 전시회도 열렸다. 하지만 지역 작가와 동호인들의 전시회가 더 많았다. 또 올 여름에는 썸머 아트 챌린지를 진행하며 지역 주민들이 예술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처음 갤러리를 만든다고 할 때 반신반의하던 주민들은 이제 갤러리 107 전시 소식을 기다린다. 작품을 보러 미술관에 방문하는 주민은 물론 갤러리를 그냥 스쳐지나가는 사

람들마저도 즐겨워한다. 작은 농촌 마을에 갤러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문화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같다는 반응이다.

지역 예술단체의 활동도 더욱 활발해졌다. 혼자서 취미로 미술 활동을 하거나 사정상 미술활동을 접했던 주민들, 관심은 있었지만 계기가 없었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한 것이다. 갤러리107 조성 이후 곡성미술인협회, 목향림, 생연필이라는 3개의 미술 단체가 새로 만들어졌다. 많은 주민들이 단숨에 예술문화 향유와 생산의 주체가 된 것이다. 덕분에 개개인의 삶은 더욱 다채로워졌고, 지역에는 새로운 로컬 문화가 꽃피고 있다.

지난 3월 목향림이라는 한국화 동아리를 정식으로 창단하고 첫 작품전을 개최한 김기술 목향림 회장은 “그동안은 문화센터 내 빈 공간에 이젤을 세워놓고 전시를 했다. 그런데 갤러리107이 생기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작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전시를 계기로 한국 화회 고유변호증도 발급 받고 정식 전시모임으로 발전하면서 회원들이 작품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며 수준도 한층 높아졌다.”라고 말했다.

현재 갤러리107은 올해 12월까지 대관 일정이 뻘뻘하다. 현재 지역 드로잉 동호회 ‘생연필’ 회원들의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수채화, 서예, 조각 등 다양한 형식의 전시가 이어진다.

또한 곡성군은 앞으로 갤러리107의 문화 거점 공간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일단 오는 겨울에는 청소년과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아트 챌린지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아트 스킵을 운영해 자유학기제 등과 연계한 문화예술 교육 체계화 등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올 9월을 목표로 스트리트 갤러리 2곳을 추가 조성도 진행 중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무심코 써내려간 고적임도, 우연히 찍은 사진도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갤러리107을 통해 주민들의 숨어 있는 문화적 욕구가 마음껏 발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갤러리107 전시와 대관에 관한 문의는 곡성군 인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상홍기자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전남도 후보지로 해남군 선정

사업부지 확보, 군민 유치의지 등 높은 평가, 9월 최종 선정 총력 대응

해남군이 농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인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의 전라남도 후보지로 선정됐다.

지난 20~24일 실시된 서류심사 및 발표, 현장평가 결과 해남군은 도내 5개 후보지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전라남도 후보지로 선정됐다.

특히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를 위해 사업 부지 매입을 완료, 신속히 사업 추진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점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 해남군은 삼산면 평활리 일원 34ha 면적의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한편 오는 2024년까지 전남도 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가 예정지와 인접한 부지로 통합 이전할 계획으로, 센터 유치와 동시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무리한 상태이다.

이와함께 기후변화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 군민 의식제고를 위한 대상별 교육 등 역량강화를 위한 준비도 착실히 추진해 온 점이 평가에서도 크게 부각됐다.

군은 지난해부터 광주지방기상청, 도 농업기술원, 서울대, 전남대, 순천대, 티맥스소프트, 팜에이트 등과 차



레로 업무협약을 체결, 민·관·학 연계로 효율적인 정책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유치 의지를 모으고, 기후변화에 대한 의식 제고를 위해 군의회, 공무원, 농민들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남대학교 등의 유수의 강사진이 강의를 진행하는 등 군민들의 높은 관심도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이번 센터 공모와 관련 지역 농업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각계 군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유치 희망 SNS 캠페인과 전체 군민 50% 서명을 목표로 범군민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등 센터 유치를 위한 군민들의 참여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는 총 사업비 4,079억원(운영비 포함)의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지구 기후위기 대응 전략 및 정책 방향 등 국가계획 수립과 농업 기후변화의 컨트롤타워 역

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최대 농업군이자 한반도 기후변화의 관문인 땅끝은 전국 평균기온보다 1도 가량 따뜻한 지역으로 2020년대 중후반 아열대기후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적 특점으로 190여 농가에서 무화과, 참다래, 바나나, 애플망고 등 아열대작목을 120여ha 면적에서 재배하고 있다.

이에따라 기후변화의 가장 밀접하게 위기를 겪고 있는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최종 부지 선정은 오는 9월 17일 있을 예정이다.

명현관 군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정부의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분야 컨트롤타워로 기후변화의 관문인 땅끝해남이 가장 적절한 지역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군민들의 의지를 모아 선제적으로 준비해온 사업추진 역량과 땅끝해남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를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양영욱기자

광양시, 청년 소모임 다양한 활동 지원



광양시는 청년 소모임 활동지원 사업의 참여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활동 중간점검을 실시했다.

청년 소모임 활동지원 사업은 2030 청년들의 활발한 청년정책 참여를 위해 3인 이상의 광양시 거주 청년들로 구성된 소모임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9개 소모임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청년 소모임의 대표들이 각자의 소모임에 소개하고 활동 내용을 공유하는 등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 소모임은 △환경정화를 위한 플로깅 △청년가게 홍보를 위한 영상 제작 △어트린 말벗 친구 △취·창업 정보수집 및 제공 △자기 역량 개발 및 나눔 공연 등 소모임만을 위한 활동이 아닌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에서 청년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간담회 이후 일주일에 걸쳐 진행된 소모임별 보조사업 중간점검에서는 다시 한번 보조금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 안내하고, 지출증빙서류 등을 확인해 정산에 대비하도록 했다. 소모임 참가자 중 한 명은 “지금까지 우리끼리만 활동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도 들었지만, 소모임끼리 소통하면서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참여 소감을 말했다.

서윤경 청년정책팀장은 “소모임 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정책에 더욱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기회가 되었다”며, “참여 청년들의 고민과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반영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 청년 소모임은 연중 등록받고 있으며, 등록된 청년 소모임은 사업계획서 제출 후 심사과정을 거쳐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석기자

한국남동발전(주) 여수발전본부, 위기가구 안전한 보금자리 선물

1,500만 원의 사업비 마련, 저소득 복지위기가구 4세대 노후주택 개보수 '앞장'

한국남동발전(주) 여수발전본부는 저소득 복지위기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25일 1,500만 원의 후원증서를 여수시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권오봉 여수시장을 비롯해 한국남동발전(주) 여수발전본부 신윤오 본부장,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오세현 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수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 복지위기가구 4세대를 선정해 지붕 공사, 화장실 개보수, 보일러 교체 등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쌍봉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종진)이 함께 추진한다.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 신윤오 본부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는 편안한 일상생활을 바탕으로 활기찬 사회생활을 이끄는 휴식처가 된다”며 “희망과 꿈을 키울 수 있는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저소득 복



지위기가구의 안전한 주거공간 개선을 위해 힘써주시 한국남동발전(주) 여수발전본부에 감사드립니다”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여러 해를 거듭하며 지역사회 브랜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 큰 발전으로 지역민과 상생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

는 2018년부터 저소득 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부 내 장애인복지관 카페 운영 공간 제공, 다문화가정 및 독거노인 후원, 희망박차, 발전소 주변마을 자녀 학비 지원, 섬마을 비상소화전함 설치, 사회적 안전약자 안전드림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남출기자

강진군, '폼생폼사 강진향교'에서 배우는 내 고장 강진!



강진문화원은 지난 8월 첫째 주부터 '폼생폼사 강진향교'사업에 청자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해 참여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폼생폼사 강진향교는 강진군이 주최하고 강진문화원이 주관, 문화재청이 후원하는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이다. 현재 대표 프로그램인 '다산향차 다례체험'을 비롯해 생활 속 전통예절을 배우는 '다소고시 전통예절 교실'과 고유의 전통 놀이를 알리기 위한 '놀자 놀자 놀이가 밥이다!' 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신규 프로그램인 청자 만들기 수

업은 2010년 강진으로 귀촌해 공방을 운영 중인 도예가 이승표·윤희경 부부가 강사로 참여하며, 흙다지기부터 삼강, 가마에 굽기까지 청자의 제작 과정과 고려청자의 산고장 강진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흙으로 빚는 찾잔에 직접 무늬를 새겨보는 시간을 갖는다.

문화원은 11월 말까지 청자 만들기 교육을 진행하며 현재 강진 관내 5개소의 어린이집과 병설유치원 원아들을 대상으로 청자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전 신청을 받아 초·중·고등학생들까지 체험객의 범위를 넓혀갈 것이라고 밝혔다.

호산나어린이집 오선미 교사는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다례교육도 받고 찾잔을 직접 만들 수 있어 무척 재미있어하고 집중도와 참여도가 특히 높다”며 “아이들과 함께 강진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김장길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첫 직원 공개채용 경쟁 치열...

7명 선발에 총 157명 접수하여 평균 22.4:1의 경쟁률

서구시설관리공단 2021년 직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7명 선발에 총 157명이 접수하여 평균 22.4: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모집 분야별로 보면 신규(일반직 7급) 6명 모집에 153명이 지원하여 25.5: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경력직(일반직 4급)은 1명 모집에 4명이 지원하였다.

필기시험은 오는 8월 28일에 치러지며, 8월 26일 채용사이트에 서류전형 합격자와 필기시험 일정 등 자

세한 내용을 공고할 예정이다.

서구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시험 전·후 시험장 전체를 방역 소독할 계획이며, 시험 당일 시험장 입구에 체온 감시카메라, 손소독제, 코팅장갑 및 사전문진표 등을 비치하고, 시험장 내 2m 거리를 두고 책상을 배치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험의 모든 과정은 지방공기업 인사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며,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에 이어 3차 면접시험을 거쳐 9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임용 절차를 거치게 된다.

김덕윤기자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선제적 격상

김승수 전주시장, 2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에 따른 긴급 브리핑 갖고 대시민 담화문 발표

전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2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강력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지금 당장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한 상황인 만큼 오는 27일 0시부터 9월 9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음식점·카페·유흥시설 등에서 감염된 확진자가 지인·가족 등으로 전파되면서 최근 일주일(18~24일) 동안 총 119명, 일일 최대 26명(23일)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최근 3일간 신규 확진자가 20명을 초과(22일 21명, 23일 26명, 24일 24명)하고, 델타변이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잡고 있는 점, 선별검사 건수도 급증한 점 등으로 고려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취지로 이같이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상향되



면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이 2인 이하로 제한되는 등 방역수칙이 한층 강화된다. 단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기존처럼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며,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임 경우에는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무도장, 홀덤펍, 홀덤펍게인장 등은 집합이 전면 금지되며, 대형마트와 노래연습장, PC방, 목욕탕, 오락실, 영화관, 학원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용인원의 10% 이내

에서 최대 99명까지 예배 등 종교집회가 허용되지만 기타 행사나 식사, 숙박은 전면 금지된다.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실내·외 공공체육시설도 임시 폐쇄된다. 다만 필수시설인 장애인 복지시설과 노인 주간보호센터, 어린이집 등은 폐쇄가 되지 않는 대신 인원 제한 등 방역이 한층 강화된다.

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맞춰 6개반 94개소 188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편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집합금지 시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문을 열거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들어 가족 중 단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온가족이 모두 감염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비교적 가벼운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도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는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1일부터 23일까지 전주지역에서 신규 확진된 235명 중 절반 이상인 138명(58.7%)이 가족·지인간 전파로 인해 확진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하루하루 험거운 일상 속에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 힘들고 긴 싸움에서 나와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전주지역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난 23일에는 역대 하루 최다인 3639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등 접촉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시는 현재 총 45개 역학조사팀(166명)을 편성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에 임하고 있다.

김승수/기자

완주군, 인구정책 업무 유기성 높인다

사업 추진 부서 상황보고회 열고, 점검·대응방안 모색

완주군이 인구 유입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하는 가운데 관계부서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5일 완주군은 인구증가를 위해 지난 24일 부군수실에서 ‘인구정책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인구정책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10개 부서가 참석했다.

참여자들은 완주군이 지난해 인구 소멸위험지역으로 추가된 것과 관련해 인구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원활한 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인구정책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일자리, 주거, 출산, 육아지원 분야 등에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브레인스토밍



방식을 도입해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

김성명 완주부군수는 “인구문제는 쉽게 해결될 일도 아니고,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모든 사업을 인구적 관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효과를 높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완주군은 2020년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인구정책 중장기 로드맵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인구감소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김광수/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민원담당 공무원 소통 간담회 개최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23일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격려하고자 민원담당 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 최일선에서 대민업무를 처리하는 민원담당자들의 애로사항과 고충,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민원서비스 경험을 서로 공유해 민원현안 논의 및 민원담당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

김현태/기자

남원 성시리 산성 긴급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개최



남원시는 26일 11시에 남원 성시리 산성 발굴조사 현장에서 학술자문회의와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성시리 산성 긴급발굴조사는 산성의 명확한 성격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유적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발굴조사로 2021년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사업모집 공고에 선정되어 진행하였다.

성시리 산성은 남원시 보절면과 장수군 산서면의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삼국시대에는 백제의 행정구역인 거사물현이, 통일신라시대에는 군사시설인 거사물정이 설치되었다고 추정된다.

이남출/기자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유관기능과의 협업 토크 콘서트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는 112 신고 중 주취자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상황으로 이에따른 주취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응에 관하여 백신점중 2회 완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유관기능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 등 보호조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설치하여 운영 중으로 응급의료센터

운영에 대한 취지와 내용 이해와 현장 근무자들의 주취자 관련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겪고있는 문제점과 애로사항들에 대해 유관기능과 현장 경찰관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 서로 나눔으로 주취자의 보호와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구대장 송태석 경감은 “주취자 신고 처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와의 협업으로 주취자 관련 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주취자 보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송승현 익산서장은 “주취자로 인해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다함으로 현장 경찰관의 부담을 줄이고 주취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선수/기자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도민에게 행복을 드립니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

경기도의회가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천안시, 성평등으로 함께가는 행복한 도시 천안

다양한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차별 없는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

천안시가 모두가 행복한 성평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여성과 남성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성평등 정책 기반을 구축해오고 있다. 여성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지침 제정, 성인지역량 강화를 위한 대상자별 맞춤형 4대폭력 예방교육, 성매매근절 캠페인 추진, 경력보유 여성 직업교육훈련,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등을 진행해왔다.

올해 1월에는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해, 앞으로 5년간(2021~2025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지난 5월에는 충남 최초로 '여성폭력 방지조례'를 제정하고 6월 '천안형 여성 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제정해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난 5월 성평등 전문관을 채용했다. 성평등 전문관은 양성평등 및 성인지 관점을 기반으로 시정 전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성인지,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를 제시하며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평등한 도시를 실현하고 있



다. 천안시 최초로 성평등한 사회의 이정표 역할을 할 성인지 통계집 제작에도 착수했다. 성인지 통계집은 지난 3월 성인지 통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실시를 시작으로 올해 9월 발간을 앞두고 있다. 성인지 통계는 여성과 남성이 처한 상이한 조건과 문제, 불평등한 상황을 파악하고 성인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외에 성인지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 민간기관, 부서 간 협력이

필수조건임에 따라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복지문화국장을 단장으로 사업담당자와 팀장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 여성 안심도시 실무추진단'은 천안형 여성친화대표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다.

추진단 중 실무협력단은 청년과 밀접하게 연계된 7개 부서를 중심으로 구성된 천안의 여성과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 안전, 문화, 교통 등 종합적으로 사업을 점검하고 함께 진행한다. 특히 여성친화적 관점을 반영한 '천안여성청년 안심 프로젝트'

를 여성친화특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2019년부터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를 운영 중으로, 협의체는 시민참여단 사업 지원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세부사업별 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이달 임기 만료에 따라 재위촉 시에는 다양한 전문가로 재구성해 실질적인 협력파트너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4개 분과(경제활동, 안전·공간조성, 가족친화, 홍보) 33명으로 구성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단은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젠더폭력 제로(Zero) 사업'을 추진 중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공공시설물 모니터링 및 양성평등 지역문화 확산 공감대 형성 홍보 캠페인, 불평등 모니터링 및 개선건의 제시 등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윤은미 여성가족과장은 "천안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함께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업을 바라보고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며, "천안여성청년안심 프로젝트를 전국 최초 여성친화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여성과 남성 모두가 안심하며 일하고 머물고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천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태안군, 해양치유산업 대표브랜드 선정 '쾌거'



서해안권 유일의 해양치유센터를 조성 중인 태안군이 해양치유산업 대표도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태안군은 '2021 고객신뢰도 1위 프리미엄 브랜드대상'에서 태안군이 해양치유산업 대표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25일 밝혔다.

중양일보 포브스코리아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JTBC가 후원하는 브랜드대상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가이드를 제공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브랜드별 성과 및 비전 △인지도 및 서비스 만족도 △브랜드 경쟁력 및 고객 신뢰도 △브랜드 미래 가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으며, 태안군은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을 보유하고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태안군은 2023년 준공을 목표로 남면 달산포 일원에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8570㎡ 규모의 '태안 해양치유센터'를 조성 중에 있으며, 최근 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 변경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11월 첫삽

을 뜰 계획이다.

특히, 태안군이 보유한 28개의 해수욕장과 도서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피트, 소금, 머드, 모래 등 다량의 해양치유자원을 활용, 태안의 미래 백년을 열어가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협력으로 피트와 갯벌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 군 해양치유자원의 우수성과 안정성을 확인하고 올해 의학적 효능 검증에 의한 임상시험 및 해양치유전문료 조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태안군의 특성과 해양치유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해 과학적 데이터 축적에 나서는 등 성공적인 치유센터 운영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 해양치유센터가 조성되면 649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4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태안군이 해양치유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군 역량을 총동원해 원활한 사업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대전광역시 중구, 올해부터 삼성스마일안과와 스마일라식수술 지원

대전광역시 중구는 올해부터 삼성스마일안과와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2명씩 10년간 스마일라식수술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25일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저소득층 수술 지원에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의거 중구청은 지원대상자 추천과 행정적 지원을, 삼성스마일안과는 수술 및 치료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구는 올해 11월까지 대상자 2명을 추천하고, 삼성스마일안과

에서는 12월까지 수술 및 치료를 마칠 예정이다.

김호근 행정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수술비용이 부담되어 시력 교정술을 받지 못한 어려운 이웃들이 편안함을 되찾고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갑 청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삼성스마일안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소외되는 이웃 없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옥천군,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온라인축제 CM송 공모전" 인기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온라인축제"의 홍보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추진한 대국민 CM송 공모전이 큰 호응

을 얻고 있다.

군은 공모 접수기간인 지난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156곡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91%에 달하는 110곡이 충북 이외의 지역인 서울·경기 등 타 시·도 국민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접수자의 93%가 MZ세대(1980~2000년 출생자)로 옥천 포도·복숭아의 맛이 40대이하의 젊은 세대 취향을 저격해 축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출품된 곡은 작품성, 대중성, 활용성, 창의성 등의 심사기준을 통해 예심과 본심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9일 심사결과를 옥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9월 15일 시상식을 통해 최우수상(1팀) 400만원, 우수상(1팀) 200만원, 장려상(1팀) 100만원

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류종열 친환경농축산과장은 "처음 추진하는 공모전이라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전국의 많은 분들이 참여한 것을 보고 옥천 포도·복숭아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으면서도 옥천 포도·복숭아의 우수성을 담고 있는 CM송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7월 10일부터 우체국쇼핑물 기획관에서 운영 중인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온라인축제'는 현재까지 137만회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중 포도는 5천7백만원, 복숭아 7억2천1백만원, 옥수수 4억3천5백만원, 감자 5천1백만원 등 농특산물과 중소기업제품을 온라인 등을 통해 13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최만식기자

홍성소방서, 가을장마 빗길 안전 운전 당부

홍성소방서는 태풍 오미스가 지나가고 연이은 가을 장마로 교통사고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빗길 안전운전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장마철 호우로 비에 젖은 노면을 고속으로 주행하게 되면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물의 막이 형성되어 조향성을 잃는 '수막현상(hydroplaning)'이 발생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며, 빗물로 인한 시야 감소와 미끄러운 노면으로 교통사고의 확률은 평소보다 약 30% 정도 증가한다.

빗길 안전사고 예방 요령으로 ▲타이어 트레드 마모도 점검 ▲평소보다 1.5배 이상 차 간 안전거리 확보 ▲20%이상 감속 운행(생활도로에서는 30km/h 이하 유지) ▲항상 전조등 켜 두기 등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빗길 운전 시 시야 확보가 어렵고 제동거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며 "교통사고는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재산과 연결되므로 항상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원호기자



서천군, 2021년 민원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서천군은 이달 25일 서천군청소년수련관에서 민원업무 담당자 3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민원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은 민원업무에 따른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방역 및 해결, 업무 스트레스 해소 마사

지, 나만의 커피 만들기 체험 등 민원담당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업무에서 벗어난 환경에서 에너지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해 실시했다.

또한 군은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특이민원(폭언·폭행) 발생상황 대비 모

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황인집 민원봉사과장은 "오늘 교육으로 민원업무 공무원들이 심리 안정을 통한 스트레스가 해소되기를 바라며 모두 업무에 적극적인 대처와 문제 해결로 서천군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삼척시, '제왕운기의 산실, 천은사' 발간

삼척시가 동안거사 이승휴 선생의 사상을 선양하며, 향토문화 유적의 보존·전승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한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제사업으로 (사)동안이승휴사상선양회와 함께 제왕운기의 산실, 천은사(김도현 저)를 발간했다.

저자인 김도현 문학박사는 천은사를 이해하는 데 사용된 다양한 사료와 유물·유적 분석 등을 통해 천은사의 연혁과 역사성, 복장유물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해석을 시도하여 전통사찰로서의 천은사의 역사적 의의가 재조명되기를 원했다. 특히, 민족사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우리의

고대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 이승휴 선생이 10여 년 이상을 천은사에 머무르며 '제왕운기'를 저술한 유서 깊은 사찰이라는 면에서 역사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청, 관내 유관기관 및 공공도서관 등에 본 선고를 배부하여 동안거사 이승휴 선생의 업적과 사상을 선양하는데 홍보할 계획"이라며 "(사)동안이승휴사상선양회와 함께 삼척 두타산 이승휴 유적지의 보존·전승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고창청소년위원회, 경로당 찾아 직접 만든 수제 과일청 나눔



고창군 청소년위원들이 직접 만든 수제청을 경로당 어르신 등 이웃들과 나누며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고창군청소년참여위원회를 비롯한 4개 청소년시설 운영위원(67명)들은 지난 19~25일 연합 프로젝트 수제청 만들기 체험에 함께 했다. 이번 체험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4개 시설에 각각 분산해서 운영됐다. 청소년위원들은 청귤과 백향과를 자르고 실탕에 부어 수제청을 만든 후 각각 병에 넣고 깔끔하게 포장하는 것으로 완성했다. 완성된 수제청은 모두 이웃에게 기증됐다. 흥덕과 성내 문화의 집 위원들은 각각 근처 경로당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전달했고, 고창읍내인 참여위원과 수련관 운영위원, 청소년문화센터 위원들이 만든 수제

청은 고창군 장애인 복지관에 전달했다. 김연우(고창북고 2)학생은 "처음 접해본 수제청 만들기가 생소하고 서툴렀지만 나름 정성을 다했으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고창군청소년위원회 연합 프로젝트는 총 3차에 걸쳐 진행되며, 1차인 수제청 나눔 행사를 시작으로 환경 보호 캠페인과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을 올 하반기에 연이어 진행할 계획이다. 고창군체육청소년사업소 양치영 소장은 "청소년들이 동네 어르신들께 다가가고 지역의 변화를 위해 적극 참여하면서 효심과 자부심을 키워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현태기자

성북구, '2021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우수상 수상

서울 성북구가 '2021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발표대회'에서 '주민의 삶과 도시의 기록 저장소 "성북마을아카이브"'를 주제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한국거버넌스학회는 공공부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정책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상호 정보 공유 및 교류를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를 모집하여, 학계와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성북마을아카이브'는 성북의 역사·문화자원, 주민의 생활에 관한 기록들을 수집하고 디지털 아카이브시스템에 보관하여, 누구든지 쉽게 성북의 마을기록을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든 홈페이지로 주민이 마을기록 발굴과 역사문화 콘텐츠 생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 지식플랫폼이다.



구는 2020년 1월 전국 자치구 최초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였고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약 7,000여 건의 디지털 마을기록을 보관·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마을기록은 사진, 영상, 간행물, 구술 채록 등 다양한 형태로 구

성되어 있으며 성북에서의 독립운동과 문학 콘텐츠를 개설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구는 서울시 최초로 2020년 12월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

정하여 기준 없이 수집되고 있던 민간기록물을 조례로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민간기록물의 정의, 수집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성북마을아카이브는 주민들이 주민기록단 활동을 통해 기록의 주제로 능동적으로 마을기록 수집에 참여하면서 행정 영역에서 파악하지 못한 마을의 이야기를 온전히 담아 자신의 역사를 자신의 손으로 기록하는 기록민주주의와 기록 관리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성북만의 개성적인 정체성을 모색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기 쉬운 주민들의 활동과 일상생활의 흔적을 수집하고 소중한 기록으로 보존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방자치 시대 기록문화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청도군, '친절 공무원' 격려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청도군은 지난 24일 평소 민원 방문자 및 전화에 친절히 응대해 온 친절 공무원에 대하여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근 군청 홈페이지 '친정함시다'란에 민원인들로부터 감사의 글이 올라온 친절공무원들은 더욱 군민들에게 공감행정으로 업무에 정진할 것

이승율 군수는 "친절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며, 우리 군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친절 공무원의 서비스 마인드가 600여 공직자들에게 확산되어 더욱 신뢰받는 청도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하남시, '카페빵선생 하남미사점'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에 이웃 사랑 실천

카페빵선생 하남미사점은 개업 축하하분대신 받은 쌀 10kg 20포와 직접 구입한 쌀 10kg 10포, 총 30포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하였다. 카페빵선생은 한국인의 입맛과 건강에 좋은 재료는 국내산 재료라는 신념이 철칙으로 국내산 식재료와 특산물만을 사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고, 건강한 식재료와 다양한 레시피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갓 구운 빵을 만들어 국내 식품 산업에 신선한 활기를 불어 넣고 있는 브랜드이다. 카페빵선생 하남미사점은 건강한 빵을 모토로 천연발효종을 사용하고 유기농 밀가루, 우유, 버터 등의 원료

만을 고집하여 건강하고 신선한 빵과 커피를 선보이고, 모든 제품을 매장에서 직접 구워 갖 나온 따끈따끈한 빵을 접할 수 있다. 최민정 대표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축하하환을 받기보다 쌀을 받아서 지역의 취약계층과 나누는 의미 있는 개업식을 하고 싶었다."며 "앞으로 저희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함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후원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고 말했다. 조혜연 관장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해 주신 최민정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신규 오픈한 카페빵선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고, 오늘 후원물품 전달이 복지관과 카페빵선생의 연

결고리가 되어 앞으로도 좋은 인연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강호기자

광주시, 퇴촌면 이장협의회 통큰 이웃돕기 성금 기탁



광주시 퇴촌면 이장협의회는 지난 24일 퇴촌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여인용 협의회장은 "행정의 협력자 그리고 주민과 소통하는 협의회로서 각 마을 이장들의 뜻을 모았으며,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사랑과 온정이 넘치는 퇴촌면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민수 퇴촌면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뜻깊은 후원을 해주신에 깊은 감사사를 드리며,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달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 후 퇴촌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강호기자

'2021 대구 아동·청소년참여예산 제안대회' 우수상 수상

대구 서구청장은 '2021년도 대구 아동·청소년참여예산 제안대회'에 참여하여 서구청청소년참여위원회(후.간다 5기, 윤성민)가 대구시장표창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구광역시 주최, 대구청소년지원재단·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관으로 청소년 시각에서 필요한 정책 발굴과 예산 반영을 위해 총 14개 팀(학교, 청소년시설, 개인 등)이 참여했다. 서구청청소년수련관 소속의 윤성민 학생은 지역의 어둠과 취약한 골목과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장주변과 거리 등에 LED가로등과 쏠라표지등을 설치하고, 이후 설치장면을 개인 SNS에 홍보하여 청소년들이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밝은 거리를 조성하자는 내용을 담은 『SNS(Seogu Night Safety '안전한 밤의 서구')』정책을 제안했다. 서구청청소년수련관은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교육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최우수등급 기관 수상을 한 바 있다. 남궁영기자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 교육학 박사학위 취득

"공부 하는 똑똑한 정치인이 되겠다!"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이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장 의장은 지난 25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간소하

게 열린 2021년 비대면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박사학위 연구논문은 '학부모의 자녀교육 참여 유형과 예측 및 성과 요인'이란 주제로 10여 년간 명실상부한 교육도시 오산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한 오산시 학부모들이 설문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더욱 의미 있고 뜻깊은 논문으로 평가되었다. 장인수 의장은 "정치는 오늘을 지배하고 교육은 내일을 지배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젊은 도시 오산, 교육도시 오산에서 정치를 하려면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오산 시민들께 인정받고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되어 박사과정에 도전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박사학위 취득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

양한 분야도 공부하고 노력해서 공부하는 똑똑한 정치인이 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장 의장은 "오산에서 정치를 하면서 교육을 알게 되고 공부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산의 교육발전을 위해 10여 년 이상 헌신과 노력을 하신 안민석 국회의원과 과속왕 오산시장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한편, 장 의장은 재선의원으로 현재 평균연령 37.7세의 젊은 도시 오산에서 전국 최연소 의장으로 오산시의회 최초로 전·후반기 의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2020지방의원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분야 약속대상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남주기자

과천시, NH농협으로부터 양파빵 기부받아

NH농협 과천시지부, 지역사회 도움 되고자 과천시에 양파빵 400여개 전달

과천시가 25일 NH농협 과천시지부로부터 무안 양파빵 400여개를 전달받았다. NH농협 중앙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양파 소비 촉진을 위한 '무안 양파빵'나눔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NH농협 과천시지부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과천시에 양파빵 400여개를 전달하였다. 전달식은 25일 오전 시장실에서 열렸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였다.

시는 후원받은 양파빵을 과천시노인복지관에 보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취약계층 어르신 100명에게 식사배달 진행 시 부식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 힘들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양파빵을 후원해주신 NH농협 과천시지부에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도 양파빵을 맛있게 드셨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정근기자



도봉구, 제26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슬기로운 성평등 생활, 우리가 꿈꾸는 성평등 도봉' 개최

도봉구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촉진하고, 양성평등 사회분 위기를 만들어가고자 도봉구청, 여성단체도봉구연합회, 도봉여성센터, 성평등활동센터가 주관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양성평등주간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드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도봉구도 2021년 양성평등주간 동안 '슬기로운 성평등 생활, 우리가 꿈꾸는 성평등 도봉'을 주제로 비대면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성평등 건강도시 선포식(양성평등상 표창, 선포식) 온라인 여성 영화제 영상 공모전 정책포럼 젠더특강 특별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먼저, 9월 1일 오전 10시 도봉여성센터 대강당에서는 '성평등 건강도시, 도봉' 선포식을 진행한다. 행사 소식은 "유튜브 도봉TV"로 다시

만날 수 있다. 선포식에서는 구청장, 명예구청장, 서포터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성평등 실현 여성친화정책 활성화 여성인권 및 안전강화 3개 부분의 여성권익증진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한다.

이어 전국 최초 성평등 건강도시 선포 및 선언문을 낭독하고,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 젠더폭력 예방강화 여성대표성 확대 지역정책의 성주류화 실현 성평등 의제 적극 발굴 지역 여성들의 역량 강화 등 6가지 실천과제를 다짐하는 퍼포먼스도 함께한다.

한편 도봉구 최초로 설립된 성평등센터에서는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온라인 영화제를 운영한다. 영화제에서는 '일상과 만나는 성평등 문화'라는 주제로 온라인 상영관(퍼플레이 purplay.co.kr)을 통해 성평등, 젠더 이슈 등을 다룬 12편 내외의 국내영화가 상영된다. 영화감상 후 감상평을 남기는 이벤트도 준비됐다.

성평등주간 마지막 날인 9월 7일에

는 젠더폭력 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제2차 정책포럼 '지역사회 젠더폭력 현황과 과제'를 개최한다.

이 밖에도 '민관학합동 여성리더십 프로그램'과 "움직여! 몸 다양성 워크숍", '성평등 영상 콘텐츠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특히 성평등 영상 콘텐츠 공모전은 성평등을 주제로 한 3분 내외의 영상물을 공모하며, 성인부 청소년부 대상에게는 각각 1백만원,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공모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비대면으로 치러지는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통해 일상에서 만나는 성평등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여성은 물론 구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도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유주/기자



2021.9.1(화) 오전 10시
도봉여성센터 대강당(도봉구 도봉로 111-1)
행사: 도봉구청, 도봉여성센터, 도봉구연합회, 도봉여성센터, 성평등활동센터

주요 행사: 1. 선포식, 2. 정책포럼, 3. 온라인 여성영화제, 4. 성평등상 표창, 5. 퍼포먼스, 6. 온라인 상영관, 7. 온라인 공모전, 8. 특별 프로그램

주최: 도봉구청, 후원: 도봉구연합회, 도봉여성센터, 성평등활동센터

'달달하고 맛있는' 무안고구마 단술 경연대회 개최

총 상금 600만 원...무안을 대표하는 음료상품화 도전

무안군은 무안 고구마의 명성을 회복하고 가공분야의 명인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9월 24일까지 무안 고구마 단술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무안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단장 김명진) 주관하에 단술장인과 단술스토리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단술장인은 무안 군민을 대상으로 읍면별로 최대 7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군은 전문가 평가와 일반인 시식 평가를 종합해 읍면별로 1명씩 총 9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단술장인에게는 무안군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장의 인증서와 50만원의 무안사랑상품권이 수여된다.

단술스토리는 무안 고구마 단술을 소재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 공모전으로 진행되며, 단술에 대한 추억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고 글, 시, 그림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군은 단술 스토리 입상작으로 대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 입선 10점을 선발할 예정이며, 상금으로는 대상 50만원, 우수상 20만원, 장려상 10만원, 입선 3만 원 상당의 무안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읍면별로 선발된 단술장인의 출품작과 관련해 홍보영상과 단술 제조매뉴얼북이 제작될 예정이며, 12월 중에는 단술스토리 부문 수상 작품 전시회도 개최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오는 9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무안군 무안을 무안중앙로15, 1층),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김명진 단장은 "고구마 단술은 어



가난했던 시절, 고구마는 끼니를 이어주는 주식이었으며, 우리의 어린시절이 단술로 향미를 익혀왔습니다. 이제 고구마 단술에 대한 추억을 모으고 값진 단술명인을 발굴하여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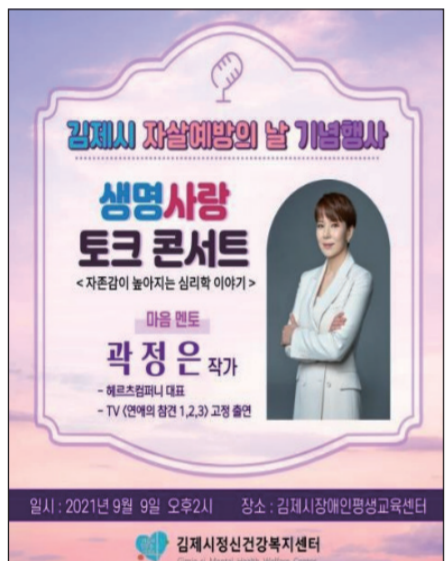
단술장인 부문
무안고구마를 활용한 단술 장류 상품을 만들어내고
고구마 단술을 만들어주세요

단술스토리 부문
무안고구마를 주제로
주제에 맞는 글, 시, 그림 등 다양한 형식으로
단술에 대한 추억을 표현해주세요

총 상금 600만원
대상 50만원, 우수상 20만원, 장려상 10만원, 입선 3만원 상당의 무안사랑상품권

신청기간: 2021.9.1(화) ~ 9.24(수)
신청처: 무안군청 1층 기획홍보팀

김제시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9월 9일 14시에 김제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2021년 세계 자살예방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세계 자살예방의 날'은 매년 9월 10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2003년부터 전 세계에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자살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김제시는 2021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일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생명사랑 토크 콘서트를 기획하여 현재 방역 중인 인기 TV방송 '연애의 참견'에 출연 중인 광정은 작가를 모시고 '자존감이 높

아지는 심리학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학생들의 고민(학업, 인간관계 등)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그리고 행사를 위해 9월 3일까지 사연 신청 이벤트가 진행되며, 사연은 바로가기 혹은 홍보 포스터 큐알(QR) 코드를 휴대폰으로 찍어서 신청할 수 있다.

김제시 거주 중·고등·대학생이면 누구나 우울, 스트레스 고민에 대한 사연을 신청할 수 있고 광정은 작가가

직접 고민에 대해 답변을 해주며 선정된 사연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과 본 행사 초대권을 준다.

김제시 치매재활과장은 "많은 분이 김제시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하여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존중 의식의 중요성을 알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본 행사 관련 및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은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승일/기자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9월 9일 14시에 김제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2021년 세계 자살예방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세계 자살예방의 날'은 매년 9월 10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2003년부터 전 세계에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자살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김제시는 2021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일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생명사랑 토크 콘서트를 기획하여 현재 방역 중인 인기 TV방송 '연애의 참견'에 출연 중인 광정은 작가를 모시고 '자존감이 높

부천시 드림스타트, 비대면 성교육 뮤지컬 관람 서비스 제공

부천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8월 20~21일까지 드림스타트 아동 28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성교육 뮤지컬 '엄마는 안가르쳐 줘' 관람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번 온택트 성교육 뮤지컬 관람은 미취학·초등 저학년 아동이 성과 신체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각 가정에서 유튜브 링크를 통해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엄마는 안 가르쳐줘'는 어린이 눈높이로 경험하는 우리 몸 속 여행을 통해 남녀 몸의 구조와 명칭, 역할과 차이점 그리고 생명 탄생의 비밀에 대해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게 만든 어린이 교육 극이다.

박화복 아동청소년과장은 "이번 공연은 부모들이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성교육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도록 음악과 함께 재미있게 풀어내



는 뮤지컬'이라며 "과학적 지식과 정서적 감수성,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어린이들의 무한한 상상력이 발휘될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부천시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최정부/기자

상북어린이도서관, 고대영 작가와의 만남 운영

양산시립 상북어린이도서관에서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고대영 작가와의 만남'을 운영한다.

고대영 작가님은 거짓말, 두발 자전거 배우기 등 '지원이와 병관아' 시리즈, 그림책으로 행복해지기, 아빠와 아들 등 다양한 그림책을 펴냈다. 작가와의 만남은 9월 11일 14시에 비대면 줌 어플을 통해 운영한다.

작가님의 저서인 『지하철을 타고 서』를 만든 과정을 바탕으로 '그림책은 어떻게 만들어질까?'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며, 7시부터 초등 3학년 30명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8월 20일부터 마감 시까지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

시립도서관 관계자는 "평소 작가님의 그림책을 읽으며 궁금했던 점을 직접 물어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상북어린이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광용/기자

서울시, 시민의 추억 속 미래유산, '서울미래유산 역사사진 공모전'



489개 서울 미래유산의 모습이 담긴 2009년까지의 과거사진 출품

공모기간: 2021. 08.25 ~ 09.30

서울시는 미래유산에 얽힌 추억과 이야기를 담은 과거 사진을 출품하는 「서울 미래유산 역사사진 공모전」을 8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2009년까지 촬영된 서울미래유산의 과거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출품 받아 개별 미래유산의 과거사를 기록하고, 미래유산에 얽힌 시민들의 소중한 추억을 수집하고자 한다. 공모 대상은 489개의 서울미래유산 자체의 과거 모습 사진뿐만 아니라 서울미래유산과 관련된 인물사진(미래유산 소유주, 작가 등), 미래유산을 배경으로 한 인물사진(가족사진 등) 등 다양한 작품들을 출품 받는다.

서울 미래유산 목록(21년 현재 489개 선정)은 '미래유산 홈페이지' 확인 할 수 있다.

참가 신청서는 '내 손안에 서울' 공모전 페이지 또는 '미래유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사진 파일과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1인당 최대 3개 작품까지 제출 가능하며, 출품 사진을 직접 촬영하거나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소지한 전 국민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수상자는 심사위원회를 거쳐 10월 15일(금) 발표될 예정이며, 55건의 작품을 대상으로 총

아산시, 만전당 홍가신 선생 제480주년 탄신제 거행



24일 아산시 염치읍 대동리 소재 만전당 영정각에서 홍가신 선생의 탄신제 480주년을 기념하는 탄신제가 봉행됐다.

'만전당 홍가신 선생 탄신제'는 송모

회(송모회장 권희천) 주관으로 매년 음력 7월 17일 홍가신 선생의 송고한 업적을 기리며 거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를 준비하고 시작을 알리는 전폐례를 시작으로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이 차례로 선현들에게 술을 따르는 헌례, 분헌관들이 성현들에게 술을 올리는 분헌례 등으로 진행됐으며, 오세헌 아산시장이 초헌관을 맡아 홍가신 선생의 높은 뜻을 기리며 제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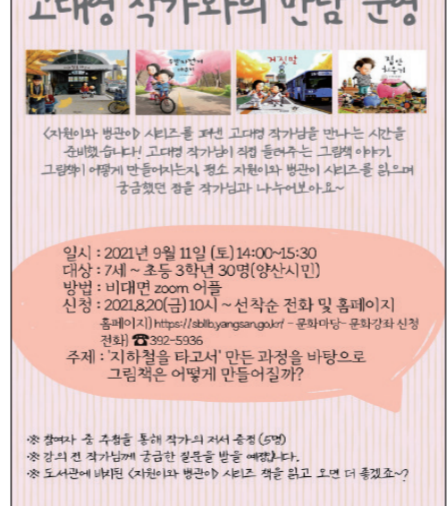
홍가신 선생(1541~1615)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정치가와 성리학자로도 높은 명성을 얻었다. 선조 4년 31세에 벼슬을 시작해 35년간 부어현감,

수원부사, 파주·홍주·해주목사 등을 지냈으며 홍주목사 시절에는 이몽학의 반란을 평정했다.

현재 아산시 염치읍에는 시를 대표하는 학자인 홍가신 선생의 묘역과 사당, 기념관 등이 있다.

이날 초헌관으로 참석한 아산시장 오세헌은 "만전당 홍가신 선생 탄신제에 초헌관이라는 큰 직책을 주셔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라며 "이번 탄신제를 통해 홍가신 선생의 송고한 업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훌륭한 지역 문화자산을 계승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고대영 작가와의 만남 운영

신청기간: 2021.9.1(화) ~ 9.24(수)
신청처: 무안군청 1층 기획홍보팀

백운석 문화정책과장은 "올해 성황리에 마무리 지은 스티커 공모전에 이어 두 번째로 역사사진 공모전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엘범 속 미래유산들의 옛 모습을 다시 한 번 찾아보고, 그 시절 추억을 곱씹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유주/기자

경남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9건 예타 통과

부산시 박형준 시장, 부산경제 미래를 선도할 혁신기업 탐방

23년의 기다림이 결실로... 남해-여수 해저터널 예타 통과

경상남도는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 대상 사업의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국도77호선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을 비롯한 도내 9개 사업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은 1998년 7월, 당시 문화관광부가 두 지역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한려대교(현수교) 건설 계획을 세우며 처음 추진되었으나 2002년, 2005년, 2011년, 2015년 4차례에 걸쳐 실시된 예비타당성 조사 때마다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좌절되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수년간 전국 각지의 지역사회의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 지역 사업에 유리한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경제성 분석에 대한 끊임없는 개선 요구를 받아왔고,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조사에서는 지역균형발전분석 항목의 가중치를 높여 평가해 과거 불리한 평가를 받았던 사업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최초 사업 구상 이후 남해-여수 지역 주민, 도지사, 시장·군수,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과 정당을 넘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무려 23년 만에 결실을 본 셈이다.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이전까지 1시간 20분에 달하던 이동

시간이 단 10분으로 단축된다. 여수·순천과 남해를 찾는 관광객의 이동이 수월해져 경제적 상승효과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남해군민들은 여수시의 우수한 의료시설과 여수엑스포역의 ktx를 한결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의료·교통·문화 분야에서 삶의 질을 대폭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로 국도58호선 밀양 부북-상동 건설, 국지도 67호선 함안 여항-장원 내서 등 6건의 사업이 일괄예타 종합평가를 통과함으로써, 도내 주요 국도·국지도 사업 착수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밖에 국도77호선 고성 동해 장좌-양촌 건설과 국도14호선 거제-남부 일운 건설은 종합평가와 별개로 실시한 안전성 평가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 추진 필요성을 인정받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가능성을 높였다.

이로써 도정 핵심 시책으로 추진 중인 부울경 메가시티와 가덕 신공항 건설이 예타를 통과한 주요 도로 건설사업과 맞물려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남도는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물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 7건이 내달 국토교통부가 최종 발표하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군과 협력하여 마지막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을 계획이다.

도내 주요 도로 건설 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내년부터 본격 착수할 경우, 해저터널을 포함한 서부 경남지역 사업은 남부내륙철도와 연계하여 전남 여수·순천·광양 지역을 아우르는 남해안 남중권역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와의 협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중부내륙권역 사업은 2024년 준공될 함양-울산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간선도로망으로서 부울경 메가시티와 남해안 남중권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간선도로망 구축에 초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큰 고비를 넘겼지만, 제5차 5개년 계획의 조기 건설 우선 순위에 최종 반영되는 순간까지 방심할 수 없다"며, "도민들께서 바라는 대로 도내 주요 도로 건설사업을 서둘러 착공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도로망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책과 현장 연계, 비상경제대책회의 정책 AS 현장방문

부산시는 오늘(25일) 오전 10시부터 스마트공장 확산·보급에 앞장서는 ㈜오토닉스와 비대면 트렌드를 선도하는 혁신 창업기업들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7일 ㈜금양에 이어, 평소 혁신 주체로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해 온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지역 우수기업들을 직접 찾아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혁신기업의 롤모델로서 역할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첫 방문지는 산업 자동화 핵심기술인 센서·제어기기 분야 국내 대표기업 ㈜오토닉스(대표 박용진)이다. ㈜오토닉스는 스마트공장을 확산·보급하는 대표적인 스마트 제조 혁신기업으로, 특히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최초 시행한 'K-스마트 등대공장' 전국 10개사 중 한 곳으로 선정되어 산업 현장의 스마트기술 보급을 위한 허브 역할이 기대되는 기업이다.



이날 첫 방문지는 산업 자동화 핵심기술인 센서·제어기기 분야 국내 대표기업 ㈜오토닉스(대표 박용진)이다. ㈜오토닉스는 스마트공장을 확산·보급하는 대표적인 스마트 제조 혁신기업으로, 특히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최초 시행한 'K-스마트 등대공장' 전국 10개사 중 한 곳으로 선정되어 산업 현장의 스마트기술 보급을 위한 허브 역할이 기대되는 기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토닉스는 기업의 중장기 전략인 '스마트팩토리 토털솔루션 구축'을 통한 한국형 제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부산시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국가공모사업 유치와 스마트 제조기술 보급 등에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토닉스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일자리·산학협력·연구개발·조직문화 개선 등 기업혁신의 대표 모델"이라며, "부산의 허

약한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여러 차원에서 우리 시와 협력할 사안을 논의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비대면 트렌드를 선도하며 급성장하고 있는 창업기업인 ㈜모두씨인(대표 이영준, 온라인 간편 계약 서비스), ㈜미스터멘션(대표 정성준, 장기숙박 중개서비스), ㈜지이모션(대표 한동수, 3D 의류 디자인)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부산에서 펀드 투자를 받거나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한 부산시 대표 창업기업이다.

부산시는 기업 대표들과의 밀도 있는 간담회를 통해 창업 성공사례와 성장동, 창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등 생생감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향후 시의 창업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창업 현장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부산 경제의 희망이 될 것"이라며, "후배 창업인들에게 롤모델이자 멘토로서 더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할 예정으로, 우리 시에서 우수 창업기업들이 부산을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광영기자

세종시, 코로나19 극복하고 풍성한 명절 되세요

세종시 사회적경제 추석 맞이 특판전 개최...온·오프라인 매장 운영



세종특별자치시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매출 극복을 위해 '사회적경제 특별 판매전'을 개최한다.

추석맞이 특판전에서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10곳에서 준비한 25가지 명절선물을 e-카탈로그로 제작해 전국 공공기관과 시민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홍보·판매한다.

또한, 일부 제품 판매를 위해 8월 25일부터 27일 10시 30분부터 14시

30분까지 3일간은 세종시청 1층 로비에서 '사회적경제 반짝 장터(오프라인 행사장)'를 연다.

반짝 장터에서는 하루에 사회적경제기업 2곳씩 참여해 명절 선물세트 등 제품을 판매하며, 행사장 방문 또는 유선 구매 시 당일 홍보제품 10% 할인, 3만 원 이상 구매하면 커피쿠폰(사회적기업 ㈜비비와씨앗) 제공 등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맞이 사회적경제 특판전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와 경제침체 속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가치소비 확산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품 구매 방법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직접 주문하거나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재은기자

경남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로 남해안 해안국도 모두 연결!



경상남도가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제5차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어 국도과 국지도 건설5개년 계획 후보사업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총 117개 도로신설·확장·개량사업을 대상으로 종합평가(ahp) 0.5이상 획득한 38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해 예타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남해-여수 해저터널(국도 77호선) 건설을 위한 6.824억 원 투입계획이 포함되었다. 경남 남해군 서면에서 전남 여수시 삼양동을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이 사업은 해저터널 7.31km 길이다.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1998년 남해안관광벨트사업 '한려대교' 건설계획으로 시작되어, 지난 20여 년간 경남도와 전남도가 오랫동안 건의해왔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4차례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논리에 따라 전국의 교통량이 많고 경제성이 충분한 도로사업들을 중심으로 투자되었고, 그 결과 도로 등 대규모 soc 사업들이 수도권에만 집중되었다.

이번에는 정부가 예전과 달리 경제성 논리보다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가중치를 변경(경제성 5% 감소, 지역균형 5% 증가)해, 남해

~여수 해저터널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을 크게 전망했다.

남해안해안고속도로건설계획에서 사업비가 적은 해저터널로 변경하여 경제성이 대폭 향상되었지만, 경제성 외에도 정책성과 지역균형행위에 높은 평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 경남과 전남은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했다.

남해안상생발전협의회 협약 및 공동성명(부산·전남·경남, '20.7), 전남·경남 공동건의문 발표('21.2), 남해군민·여수시민 서명운동('21.3~4), 국회의원 주최 토론회('21.4), 지역 상공인단체 공동건의('21.3) 등 민관이 합동으로 총력을 기울였다.

국도77호선 마지막 미연결구간인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남해안 해안을 따라 동서방향 광역교통축이 형성된다. 이동시간이 현재 1시간 20분에서 단 10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또한 남해군은 20분 내 여수시의 공항과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수도권과 전국에서 남해안을 방문한 관광객이 남해-여수 해저터널을 지나 남해안 곳곳을 편리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다.

윤인국 경남도 미래전략국장은 "2029년 여수-남해 해저터널 개통시기에 맞추어 서남해안권 발전계획을 수립 중이며, 서부경남과 동부전남의 실질적 동서통합의 시대를 열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광용기자

경북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500억이상 일괄예타 확정

기획재정부, 24일 확정 발표, 향후 5년간 국도·국지도 건설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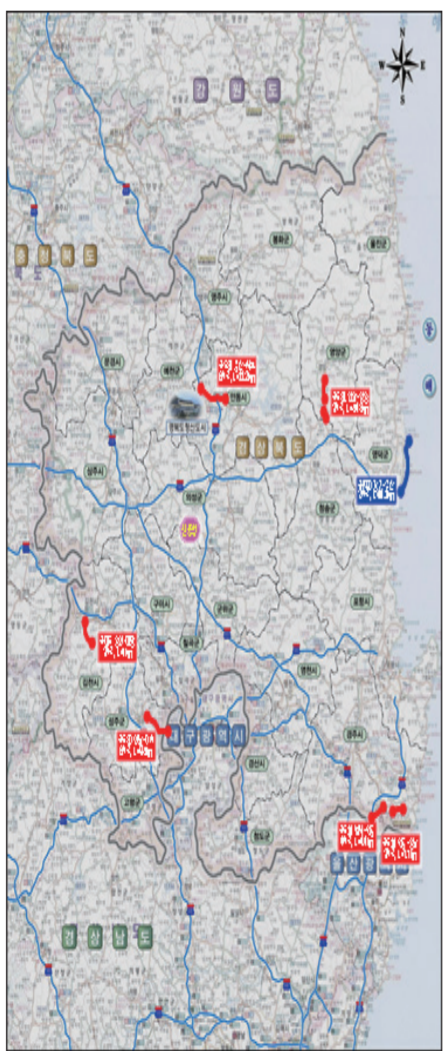
경상북도는 기획재정부가 24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 500억 이상 사업의 일괄예타 확정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도로 안전성 개선과 이동성·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으로서, 2025년까지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도로 확장, 시설개량 등 총 7.7조원 규모, 56개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5개년 건설계획은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연구원 사전분석('19.5~'20.12), 예비타당성조사('21.1~'21.7), 기획재정부와 투자 규모 등 협의('21.5~8), 재정사업평가위원회(8.24)를 거쳐 수립됐다.

이번 계획에 반영된 경북도의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은 총 7개 사업(신설1, 확장4, 시설개량2)에 59.4km 7505억 원 규모의 도로건설을 추진한다.

경상북도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설사업) 김천시 외곽순환도로 미싱구간 연결사업으로 국도3호선과 4호선을 연결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양천-대항간 4차로 전제 2차로 신설 7.02km 총사업비 1073억 원

② (확장사업) >도정에서 안동간 출퇴근 시간 차량정체 구간인 안동풍산~서후간 국도31호선 4~6차로 확장 11.17km 총사업비 1776억 원 >성주에서 대구를 연결하는 도로로 출퇴근시간 차량정체 구간인 성주 선남~대구 다사간 국도30호선 4~6차로 확장 9.51km 총사업비 1395억 원 >울산 울주와 경주를 연결하는 도로로 교통량 증가로 정체되는 울주 범서~경주 외동간 국도14호선 2~4차로 확장 4.39km 총사업비 571억 원

③ (시설개량사업) >영양 입암~영양간 국도31호선 2차로 개량 5.43km 총사업비 920억 원 >영덕 강구~축산간 국지도20호선 2차로 개량 14.13km 총사업비 1101억 원 >경주 외동~양남간 국도14호선 2차로 개량 7.73km 총사업비 669억 원

아울러 500억 미만 사업은 국토부에서 선정 후, 9월 중 고시 예정이며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은 향후 5년간 추진되는 도로의 신설·확장 계획으로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간선 도로망 확충 및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연계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충남도, 양승조 지사, 당진 현대제철 방문

전국고속노동조합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당진 현대제철 통제센터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양승조 지사가 24일 노사 간 대화추진을 위해 현장을 긴급 방문했다.

양 지사는 이날 현대제철에서 박종선 부사장, 이강진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 등 노사 대표를 잇따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박 부사장에 대해 현대제철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지회장에게는 노조 활동 과정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야 하며, 제철소 통제센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양 지사는 또 노사 양측에 고용안정과 공적재배치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제철과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26일부터 29일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교섭을 벌이기로 했다.

고정화기자



보이그룹 메가맥스(MEGAMAX), 오는 9월 8일 데뷔 쇼케이스 개최!

데뷔를 앞둔 신인 남자 아이돌 메가맥스(MEGAMAX)가 오는 9월 8일 수요일 2시 학동역에 위치한 엘리어나 호텔 5층에서 프레스 쇼케이스를 진행한다.

‘모한, 우주, 하엘, 아이덴, 칸, 재훈’으로 구성된 메가맥스(MEGAMAX)가 준비하는 데뷔 미니앨범은 총 10 트랙으로 준비, 그들의 다채로운 음악 색깔과 멤버 개개인에 매력을 담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앨범이다.

이번 첫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 ‘페인트 러브 / Painted+LOVE:’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준비하는 메가맥스(MEGAMAX) 청량감 있는 매력과 힐링을 갖춘 음색, 그리고 부드러운 음향과 깔끔무가 돋보이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앨범 작업은 케이팝 프로듀싱의 선두에서 활동하는 ‘볼스아이’와 ‘에이밍 뮤직’, ‘코끼리 열차’가 맡아 앨범의 완성도를 높여 주목을 끈다.

준비된 타이틀곡 ‘페인트 러브 / Painted+LOVE:’는 가슴 깊이 파여 쉽게 잊히지 않는 강한 사랑을 표현



한 MEDIUM POP 곡으로, 애절하지만 애뜻하고 달콤한 첫사랑을 나타내는 곡이다.

또한 타이틀곡 ‘페인트 러브 / Painted+LOVE:’는 한국어, 영어 버전, 그리고 가요계의 명품 오케스트라 편곡팀 에임스트링(Aim strings)이 합세한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출시하며 종합 선물세트와 같은 모미

로 팬심을 저격한다.

특히 관현악부터 합창단까지 믿을 수 없이 현실적인 가상 오케스트라로 표현된 대서사시로 전개되는 ‘페인트 러브 / Painted+LOVE:’는 한 편의 영화음악처럼 뜨겁고, 슬픈 여운을 남겨주어 이후에 펼쳐질 메가맥스의 세계관을 기대하게 만든다.

소속사 인미디어에앤디 김연수 대표는 “앞으로 메가맥스는 K-POP의 기라성 같은 ‘BTS’, ‘TXT’, ‘EXO’, ‘SEVENTEEN’, ‘BTOB’ 등 수많은 선배님들의 계보를 잇는 멋진 후배 그룹으로서 장수하는 그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메가맥스는 온라인 SNS 소통은 물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국내외 해외 팬들과 교류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발매와 쇼케이스를 앞둔 멤버들은 “데뷔를 앞두고 저희들의 음악을 사랑해주실 팬분들을 만나게 되어 믿을 수 없이 기쁘고 앞으로도 MEGA급의 노력과 MEGA급의 사랑으로 팬분들의 기쁨과 슬픔도 모두 음악으로서 MAX 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오는 8일 쇼케이스를 개최한 메가맥스의 데뷔 미니앨범은 같은 날 정오 정오 국내 및 해외 음악 플랫폼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유주/기자

'우수무당가두심', 숨땀 엔딩!

첫사랑 김새론 떠올렸다! 숨땀 엔딩



‘우수무당 가두심’ 남다름이 좋지 않아 전교 꼴등만 죽이는 악령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다. 시험에서 결국 꼴등을 차지한 윤정훈을 찾아온 악령의 정체는 확인하게 된 것.

위태로운 상황에서 남다른 “두심아..”라며 자신의 마음에 들어온 첫사랑 김새론을 떠올렸고, 김새론은 남다름의 부름을 감지한 듯 번쩍 고개를 들어 보는 이들의 손에 땀을 쥐는 ‘숨땀 엔딩’이 완성됐다.

카카오TV 오리지널 ‘우수무당 가두심’은 원치 않는 운명을 타고난 소녀 무당 가두심(김새론 분)과 원치 않게 영혼을 보게 된 영천아 나 우수(남다름 분)가 위기의 18세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 함께 미스터리를 파헤쳐가는 고교 퇴마로그다.

지난 20일 공개된 5화에서는 꼴등을 찾아온 악령이 우수와 일남(윤정훈 분)을 쫓기 시작하는 흥미로운 스토리가 전개됐다.

송영고 모의고사 당일, 우수는 일남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두심에게 고마워했다. 두심은 “유일한 친구인데 꼴등 돼서 죽으면 어떻게 해?”라며 친구를 생각하는 우수의 모습에 파스함을 느꼈다.

우수 역시 두심을 향한 남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영혼을 보게 된 이후 소위 오픈빨로 영혼들 사이에 ‘신장개업 맛집’으로 소문 난 우수는 자신을 찾아온 무시무시한 영혼들에게 “그 애가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심장이 뭉 때마다 같이 뛰어요”라며 두심을 향한 첫사랑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해 설렘을 안겼다.

우수와 마음이 커져가는 사이, 두심은 갑자기 우수에게 냉랭한 태도를 보였다. 우수를 짝사랑하는 수정에게 무당 딸이라는 사실을 발각당하자 “(우수와) 아무 사이 아니야. 다른 애들이랑 똑같아”라고 거짓말을 한 것.

이어 두심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우수를 차갑게 대하며 “제발 나 좀 내버려 둬”라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더니 급기야 “송영고에 악령이 있어. 꼴등만 죽이는 악령. 그러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일남이만 신경 써”라며 선을 그었다.

두심과 우수 사이에 냉랭한 기류가 흐르는 사이, 시험 성적 발표일이 됐다. 우수는 예상 문제까지 알려주며 일남을 지키려 했지만, 일남이 모의평가에서 결국 전교 꼴등이 되자 분노했다.

우수와 일남을 향해 분노의 주먹을 날렸고, 일남은 “짜증나잖아.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죽을까 봐 겁나서 하는 거”라는 말로 성적 지상주의 속 원치 않게 학업에만 몰두해야 하는 학생들의 처지를 일깨우며 시청자들에게 강한 공감을 전했다.

이때 학교 지하실을 찾은 교장 경필(문성근 분)은 “밥 먹을 시간이야”라며 악령을 풀어 소름과 공포를 유발했다. 경필의 악령 봉인 해제와 함께 우수와 일남은 순식간에 악령으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됐다.

우수와 악령을 본 위태로운 상황에 마음속으로 두심을 불렀고, 불길함을 감지한 두심과 악령을 피해 일남을 끌고 달아나는 우수의 모습이 이어지며 숨쉴 틈 없는 숨땀 엔딩을 장식했다.

한 회도 쉴 틈 없는 폭풍 전개가 이어지며 시청자들의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우수무당 가두심’. 꼴등만 죽이는 악령을 두 눈으로 확인한 우수가 과연 소중한 친구 일남을 지킬 수 있을지 6화에서 펼쳐질 스토리에 기대감이 솟구치고 있다.

카카오TV 오리지널 ‘우수무당 가두심’은 매회 20분 내외, 총 12부로 구성되며,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공개된다.

최광수/기자

'모가디슈', 신작 공세 속에도 278만 관객 돌파

폭발적 입소문과 시의성 있는 메시지가 완성한 장기 흥행

거침없는 장기 흥행세로 연일 2021년 한국영화 최고 흥행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영화 '모가디슈'가 누적 관객수 2,780,872명을 돌파한 것은 물론, 4주 연속 정상급 박스오피스를 차지하는 이색 기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개봉 이후 매주마다 신작들의 개봉 공세 속에서도 '모가디슈'의 뜨거운 입소문 흥행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속도를 유지한다면 '블랙 위도우'를 뛰어넘고 올해 첫 300만 관객 돌파라는 흥행 신기록을 세울 것을 예상해 한다.

이같이 4주 연속 박스오피스와 예매율 상위권을 기록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모가디슈'의 뜨거운 장기 흥행 돌풍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

다. '모가디슈'의 첫 번째 흥행 이유는 넓은 세대 관객층의 입소문을 바탕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친구, 연인, 물론 가족 관객들이 동반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극장 대표 사이트에서 평균 9점대 이상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동시기 개봉작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평점으로 실관람객들의 높은 만족도를 실감하게 하고

두 번째는 '모가디슈' 속 상황을 연상케 하는 국제 정세와 맞닿은 시의성 있는 메시지로 주목 받고 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상황으로 안타까움을 더하는 현 국제 상황이 '모가디슈' 속 고립된 대사관 사람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만들며 영화가 전하

는 메시지를 되새기게 하는 것.

이처럼 소말리아 내전 상황에서 탈출했던 이들의 실화를 기반으로, 김윤석, 조인성, 하준호, 구교환 등 명배우의 몰입도 높은 열연으로 완성된 웰메이드 작품의 진수를 선사하고 있는 '모가디슈'. 이는 진정한 의미의 '올해의 영화'임을 입증하며 장기 흥행에 새로운 지표를 써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영화 '모가디슈'는 1991년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내전으로 인해 고립된 사람들의 생사조차 탈출을 그린 이야기. 올해 개봉 전 최후조로 300만 돌파를 기대케 하며 연일 장기 흥행 행보를 보이고 있는 화제작 '모가디슈'는 절찬 상영 중이다.

최재은/기자



티빙 오리지널 '골신강림', 숨땀 대결이 온다.

연예계 숨은 골퍼와 골프계 레전드의 대결!



티빙 오리지널 '골신강림'의 첫 방송 예고편이 공개됐다.

오는 27일 금요일에 첫 공개되는 티빙 오리지널 '골신강림'(기획·제작 JTBC스튜디오 산하 스튜디오 룰루랄라)은 자타공인 연예계 골프 최강자 강호동과 신동엽이 라이벌 골프친구에서 운명공동체가 되어 골프 레전드들과 펼치는 대결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마침내 이루어진 강호동과 신동엽의 만남이 눈길을 끈다. 그동안 수많은 프로그램의 진행

을 맡으며 최고의 MC로 입지를 다져온 두 사람이 예능 첫 동반 고정을 결심, '골신강림'을 통해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환상적인 팀워크를 자랑할 예정이다.

2MC인 '호동엽'의 모습에 이어 박지은 프로의 모습도 관심을 모은다. 통산 55승의 메이저 여왕이자 한국 여자 프로골프 1세대 '버디퀸'인 그녀가 2MC와 대결을 치를 첫 번째 골프 레전드로 등장한 것. 그녀는 차분히 현역 시절 못지않은 샷을 날려 기대감을 높인다.

이들 지켜보던 '호동엽'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을 각오하며 샷 하나에도 온힘을 다해 집중한다. 이들은 연예계 자타공인 골퍼들답게 파워풀한 스윙을 뽐낸다.

이에 이수근은 "농담도 할 수 없는 긴장감. 만만치 않습니다"라고 말해 이들의 뜨거운 승부욕과 골프 실력에 대한 호기심이 치솟는다.

과연 강호동과 신동엽이 프로를 이기기 위해 내딛은 야심찬 도전의 결과는 어떨지, 두 사람이 함께하는 투 샷처럼 반가운 명품샷을 보여줄지 '호동엽'과 박지은 프로의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팽팽한 승부가 기다려진다.

이처럼 이제껏 볼 수 없었던 골프 예능의 신대륙을 발견해낸 강호동과 신동엽, 이수근, 임진한의 티빙 오리지널 '골신강림' 1화는 오는 27일 금요일 티빙에서 단독 공개된다.

최재은/기자

영화 '팜 스프링스', 개봉과 동시에 관객 극찬!



매일이 반복되는 타임루프 세계관에 갇힌 남녀의 오늘날 사는 코믹 로맨스 '팜 스프링스'가 개봉과 동시에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제78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던 영화 '팜 스프링스'가 개봉과 함께 흥행 청신호를 켜다.

'팜 스프링스'는 결혼식만 100만 번째? 눈 뜨면 항상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타임루프 세계관에 갇힌 남녀의 오늘날 사는 썸머 코믹 로맨스로, 미국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훌루(Hulu)에서 역대 최다 스트리밍 기록을 세운 화제작이다.

대표 코미디 프로그램인 SNL 시

리즈와 인기 드라마 [브룩클린 나인 나인]으로 유명한 엔디 샘버그와 크리스틴 밀리오티, 그리고 '위플래시'의 J.K. 시몬스가 출연해 환상의 코믹 호흡을 자랑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유명 휴양지인 팜 스프링스에 타임루프 소재를 더해 매일이 축제처럼 이어지는 황당하지만 매력적인 상황을 담아내고 있다.

영화가 개봉하면서 각종 소셜 미디어에는 실관람객들의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 "맥주 같은 영화"(익스트림무비 흥**), "유머코드가 나랑 너무 잘맞는 영화!"(인스타그램 odin****64), "그냥 로코였으면 그럭저럭이었을텐데 타임루프랑 어우러져서 진짜 재밌게 본 듯 여름마다 생각날 것 같아요"(CGV 집에****), "이 여름영화 하나 건졌다. 너무 감쪽한 로맨틱 코미디. 근데 거기에 타임루프를 곁들인"(인스타그램 ta****.moon),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직접 방법을 찾아 뚫어버리는 여주의 행동력이 좋았어요??"(CGV 루*), "유쾌하고 산뜻한 분위기의 연출과 코믹함과 진지함을 오가는 엔디 샘버그의 매력이 돋보이는 영화다"(CGV 전감독 ****), "이 계절이랑 잘 어울리는 사랑영화"(CGV 별빛**), "사랑하고 싶게 만드는 청량감 가득한 작품"(CGV 마드*) 등의 후기와 함께 실관람객들의 평가로 이어지는 CGV 골든에그 지수는 93%를 기록하고 있다.

썸머 타임루프 로코 '팜 스프링스'는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대표 코미디 프로그램인 SNL 시

아이큐, 너 때문에(x),당신 덕분에(O) 가슴저리도록



가수 아이큐가 돌아왔다. 8월 25일 정오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아이큐의 네 번째 싱글앨범이 발매된다. 두 장의 미니 앨범과 합쳐 여섯 번째 앨범이다.

소속사 티제이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번 새 싱글은 '정가'를 전공한 아이큐의 목소리에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팜 발라드로서, 러브비너 드라마의 한 장면을 영상 시키는 서정적인 곡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 합니다."라고 전했다.

한 편,아이큐는 7만 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IQMusic아이큐뮤직'에서 라이브를 진행하며, 코로나로 가수들이 설 자리가 없는 어려운 공연 현실 속에서도 시청자들과의 만남을 이어가며 팜송,7080, 트로트, 발라드 등 다채로운 장르의 음악을 자신만의 색깔로 승화시켜 들려주고 있다.

가수 아이큐의 라이브는 화, 목, 토 저녁9시 30분에 만날 수 있다.

현유주/기자